



제1회

살림문화운동 학술대회

새롭게 보는 살림문화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

세부추진내용 _

시간		주요내용	비고
1부	11:00~1:10	식전공연 : 현악사중주(JK양상블)	사회 : 김지옥 (경기학연구팀장)
	11:10~11:20	인사말 : 조창희(경기문화재단 대표)	
	11:20~11:40	기조연설 : 장필화(이화여대대학원 교수)	
	11:40~12:00	제1주제 : 살림문화 운동의 필요성 발표 : 이해경(경기대 교수)	
점심	12:00~13:00	음식 : 규합총서 음식시연 및 시식, 사진전시 공연 : 현악사중주(JK양상블) 점심 : 건강도시락	행사장 로비 및 야외정원
2부	13:00~13:20	제2주제 : 19세기 “규합총서”의 탄생과 살림의 지식화 발표 :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 :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대표)
	13:20~13:40	제3주제 : 살림의 전문가들 - 바느질과 자수 발표 : 신지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13:40~14:00	제4주제 : 살림 공공화의 지형 발표 : 김정희(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14:00~14:10	휴식	
3부	14:10~14:20	노래공연 : 가수 안혜경	사회 : 이해경 (경기대학교 교수)
	14:20~14:50	사례발표 : - 한옥자(수원가족지원센터 소장) - 선수연(구리여성회 사무국장) - 김은령(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운영위원)	
	14:50~15:00	다함께 마무리 : 서클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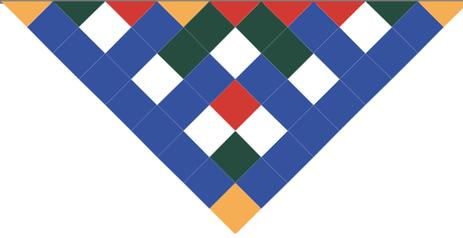
차 례

1. 기조연설	07
장필화(이화여대대학원 교수)	
2. 제1주제 : 살림문화 운동의 필요성	11
발표 : 이해경(경기대 교수)	
3. 제2주제 : 19세기 “규합총서”의 탄생과 살림의 지식화	39
발표 :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4. 제3주제 : 살림의 전문가들 - 바느질과 자수	51
발표 : 신지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5. 제4주제 : 살림 공공화의 지형	65
발표 : 김정희(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6. 사례발표	79
- 한옥자(수원가족지원센터 소장)	79
- 선수연(구리여성회 사무국장)	89
- 김은령(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운영위원)	93



기조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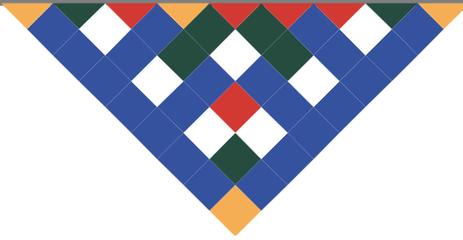
장필화(이화여대대학원 교수)





살림문화 운동의 필요성

발표 : 이해경(경기대학교수)



새로운 살림문화운동을 제안하며

이 혜 경(경기대학교 교수)

1. 지난 여성문화 운동을 돌아보며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온갖 모순과 문제를 대면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자발적이고도 조직적인 자각과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온갖 종류의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정치 운동과 함께 여성들의 자각과 움직임도 함께 했다. 그러나 그간의 민주화 운동, 여성 운동 방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여성적 관점에서의 문화운동은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문화 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모토 아래 제 2차 페미니즘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를 성찰하고 토론하며 비 가시화 되었던 여성들의 생각과 느낌, 취향과 감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대단했었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 15년 정도는! 예를 들어 『여성문화 예술기획』에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약 1년간 연극 『자기만의 방』을 했을 때 연극은 매일 연속 매진이었다. 『여성들이여!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라!』라는 단순 명쾌한 메시지는 여성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들은 이미 공적영역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고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반응을 보였다. 눈물과 웃음, 각성과 용기가 함께했다. 대학로 연극계에서는 ‘무서운 여자들’이 나타나 돈방석에 앉았다는 등, 대학로 돈을 다 긁어 간다는 등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은 연극뿐 아니라 1999년 예술의 전당에서의 ‘팔쥐들의 행진’, 여성미술제에도 이어졌고 문학과 연극, 음악과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계속 확산되어 나갔다. 가장 보수적이고 대중적인 TV에서도 여성학자들이 전문MC로 등장하여 여성들의 온갖 일상의 구석구석을 주제로 내세우며 토론과 수다를 주도해갔다.

1997년 서울여성영화제를 시작했을 때 여성의 현실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영화를 여성 관객, 그리고 다양한 대중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우선 중요한 목적이었다. 영화탄생이래 영화는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으며 그들이 만들어 온 영화 속 여성은 그들이 원하는 여성상에만

머물러 있었다. 즉 여성은 언제나 남성이 욕망하는 대상으로만 표상되어온 것이다. 여성 관객은 늘 그런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욕망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혼란을 겪어야 했다. 서울 여성영화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듯 여성 주체를 분열시키고 왜곡된 여성상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는 영화 현실, 우리의 일상을 가장 지배하는 대중문화를 새롭게 여성의 시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서울여성영화제를 시작한 이후 이를 통해 배우고 성취한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파장이 컸다.

우리는 해마다 일정한 공간에서 일시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여성들의 소통의 장, 공공의 장을 만들어나갔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취향, 감각에 맞는 영화들을 무더기로 만날 수 있음에 놀라워하고 감격하면서 여성임에 대한, 나인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긍정을 배웠고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자매애를 형성해갔다.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관점에서 여성 자신에 대한 성찰과 분석, 냉철한 시각을 키워갔다. 이는 여성문화운동이 새로운 문화 창출, 진보적 문화 창출의 장으로서 가장 복합적이고 일상적인, 그러면서도 정치적이고도 이데올로기적인, 너무나도 친숙한 우리의 일상을 해부하지 않을 수 없는 문화의 문제이므로 수행해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즉 당연시되고 익숙한 문화를 거리두기를 통해 성찰해야 할 뿐 아니라 가장 복잡한 문화연구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학문적 영역에 간혀 있었던 여성학, 문화이론과 적극적으로 제휴하며 운동으로서의 여성영화제, 대중적 축제의 장으로서의 여성영화제는 그렇게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여성영화제를 통해 우리는 여성 스스로를 성찰하고 표현함으로써 비가시화 되어있던 여성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가시화시키며 사회의 공적영역에서 여성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전혀 새로운 문화적 과정들을 경험하였다.

여성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영화제는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며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의 공공성 형성에 관여하는 과정이었다.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정말 다양했다. 여성주의 영화제가 어떠한가? 우리는 여성영화제를 통해 어떤 여성주체를 만들어 내고자하는가? 우리가 호명하고자하는 여성 관객은 현재 이곳에서 우리 여성영화제를 통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 상영된 영화들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지금 여성의 현실 중 무엇을 이슈화할까? 영화가 또는 영화제가 한국 여성들의 현실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여성감독들이 재현한 여성들의 경험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우리가 너무 급진적인가? 급진적 정치학을 견디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어떤 영화를 배치해야 할까? 등등을 끊임없이 토론했다. 이는 여성영화제가 어떻게 여성 주체를 구성해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현실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 체험에 어떠한 언어와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즉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문화를 생성해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여성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영감과 영향을 주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화다양성 형성의 과정이기도 했다. 1990년대 그

리고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여성의식이 급변하는 시기였고 여성적 관점의 문화예술운동이 이를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속의 여성캐릭터도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의식과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갔다. 정말로 급격하게 가시화되는 여성문화를 실감하는 시기였다.

2.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서울국제영화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여성영화제가 지난 2, 3년 사이 전국적으로 35개 정도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예술운동은 예전처럼 활발하다는 느낌은 가질 수가 없다. 무슨 일일까?

2011년이었던가? 구정연휴가 끝난 다음날 아침신문에 최고은양의 죽음이 보도된 것은. 한예총 출신의 재능 있는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 죽은 것이다. 예술 하는 사람들의 가난이 늘 있는 사실이긴 했지만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다. 여성문화예술운동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가난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연극하는 후배 배우들은 보따리 옷 장사를 하는가 하면 다단계 화장품 판매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기적으로 늘 연극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찌된 게 지금이 더 어렵고 폭폭한 시대인 듯 싶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즈음부터 전지구적 신자유주의가 지구상의 모든 시스템에,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경제체제, 지배적인 세계관, 지배적인 문화가 지구 전체를 파괴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1997년 즈음 시작된 대한민국의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연동되어 있었고 2007,8년경 뉴욕 월스트리트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유럽도, 아시아도, 그 어느 곳도 자유롭지 못했다.

각국은 서둘러 금융구제정책을 펼치지만 그것은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불안과 위기의식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은행, 신용을 내세우는 은행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자식 교육비든, 노후대책이든 나의 노동의 결과로 모아놓은 돈을 더 이상 믿고 맡기기 힘들게 된 것이다.

거대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 거대한 우산, 거대한 도미노, 거대한 쓰나미.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금융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환경위기, 기후위기, 식량과 농업의 위기 등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즉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명의 위기인 것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더 성공하길 원하며 더 권력을 잡길 원한다.

그래서 일 중독, 권력 중독, 성공 중독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한 피로감은 술과 오락, 소비로 해소

하려 하지만 이 또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등을 유발하면서 다양한 병리적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셈이 되어버렸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삶을 식민화하고 있다. 점점 일상으로, 내부로, 몸과 마음까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로 여겨져 왔던 가족도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¹⁾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기업의 이전도 글로벌해 지면서 남편은 두바이, 아내는 수원, 아내는 서울, 남편은 전주, 각기 직장에 따라 거주하며 헤어져 지내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주말에나 상봉하는 주말 부부들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미국이나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하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해외에서 교육받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친밀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적 단위라는 인식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는 개별화를 급격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제각각 살아남기 위해 가족은 더 이상 반드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기초단위가 아닌 것이다.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아래 모여 산다 해도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 엄마는 수발드는 기계로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가족의 해체와 개별화된 개인의 증가²⁾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서적 교감과 친밀성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의 세계적 지배는 우리들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자체가 어려운 청년들, 대학생들은 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해 폭넓게 세계를 배우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 보다는 스펙 쌓기나 취업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의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의 육아문제 또한 오랜 기간의 여성운동 속에서의 여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해 여전히 미해결의 사회적 문제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직장으로의 복귀 또한 쉽지 않아 경력단절의 문제,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갑자기 슈퍼우먼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로감과 고단함으로 온몸이 얼얼하고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직장일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어려움은 내색도 하지 않아야 세련되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에 대한 백래쉬 또한 만만치 않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울수록 이 모든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들 때문인 양 다시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불리하게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1) 올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 위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2010. 한상진, 심영희 번역. 새물결

2) 올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 위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2010. 한상진, 심영희 번역. 새물결

3. 이제 여성문화운동은 또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대체로 기존의 사회 속에서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여성들은 부불노동, 무보수노동인 가사노동이 아닌 공적영역에 평등하게 편입되기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여성문화운동도 이를 대체로 지지하며 함께 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란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뚫고 들어가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유일한 것일까?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화된 방식을 넘어, 사적 영역(가정)과 공적 영역(사회)의 분리를 넘어 새로운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데 여성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사회 시스템의 경쟁 주의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조차도 영향을 미치며 도구화 시키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어디 편히 숨 쉴 구석이 없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식민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직장에서의 삶은 물론 가족 안에서 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 내부까지! 이제 여성문화운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성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더욱 일상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여성운동의 과정을 통해 해방된 여성들은 여성 자신 뿐 아니라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 새로운 관계를 여성이 주도하는 문화 경제적 운동으로 말이다.

4. 여성이 주도하는 재판짜기

여성을 타자화하고 지구를 타자화하는 현재의 경제체제 속에서 캐서린 김슨은 새로운 여성적 사유로 재판 짜기를 제안한다.³⁾ 그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재판을 짠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이자 동시에 차이에 다시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재판 짜기는 페미니즘운동이 가져온 것 이었다 라 하면서

*“페미니즘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담론을 생산했다
페미니즘은 비가시화 되었던 남성의 역사/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해방시켰다
페미니즘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과 생명, 상호연결성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 고 한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사유를 통해 그녀는 경제를 재사유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 스스로

3) 캐서린 김슨,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 『시장사회를 넘어 : 공동체 경제와 젠더』, 이화여대대학교, 2013, 27쪽(김옥길 기념강좌운영위원회).

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이 곧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미래를 대면하는 길 위에 서있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 즉 덜 파괴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성을 타자화 하고 우리의 일상을 식민화 하는 삶의 방식에 저항하여 자율적 경제와 문화, 새 판 짜기를 만들어간 사례는 참으로 많다.

일례를 들자면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구아의 여성들이 있다.⁴⁾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구아에는 커피 재배농장이 많다. 남성들은 대체로 작은 커피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법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 커피는 소농들에게는 괜찮은 수입이었으며 전보다 많은 외화수입을 국가에 안겨 주었다. 그런데 수출생산에 중요한 몫의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커피생산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여성들과 그녀의 아이들이 그 커피농장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남편으로부터 거의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도시 술집에서 수입을 술값으로 탕진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아이들에 의해 그 커피가 수확되고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케냐의 커피 생산량은 떨어졌고 이에 1986년 세계은행과 IMF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처방했고 정부는 더 높은 가격을 남성들에게 제시하여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커피를 수확하게 하도록 장려했다. 국제개발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다시 남편의 밑에서 무보수 노동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러나 마라구아 여성들은 커피나무 사이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물론 몰래 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들은 자신들과 아이들을 더 잘 먹일 수 있었다. 마라구아의 여성들은 남편도, 정부도 자신들의 식량과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여성들은 커피나무를 뽑아서 그것을 땀감으로 사용했다. 커피나무를 뽑는 행위는 몇 년간 감옥에 가야하는 중죄로 처벌되었지만, 여성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경찰은 우리가 커피농장에서 한 일에 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고, 이는 커다란 운동으로 동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갔다. 생존을 되찾기 위한 저항이 여러 형태로 변해간 것이었다.

여성들의 투쟁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 단계의 여성착취, 즉 남편에 의한 착취, 국가에 의한 착취, 국제적 커피 무역,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자본에 의한 착취에 대항하여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투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급기반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했다. 자급의 기반인 땅을 다시 얻으면서 남편에 의한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국가에 묶이게 한 장기간에 걸친 부채의 악순환을 깨뜨렸다. 집에서 재배한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스스로 지역시장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국제적인 커피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남성들은 1980년대 말에서야 비로소 지역시장을 위해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투쟁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저항이 정부가 강요해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경제 기반인 땅을 지키는 투쟁임을 깨달았다. (Brownhill, Kaara

4)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툼젠 저·꿈지모 역, 앞의 책, 『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에서 요약.

and Tunner 1997a, 42)

이어서 이 책에서는 케냐여성들의 저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말한다.⁵⁾

여성들은..... 독립적인 자급생산을 개발함으로써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임금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땅, 물과 같은 기본적인 자원을 자기통제 아래 가져왔다. 그들은 이를 조용하면서 직접적인 집단적 행동으로 이루어냈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려고 전략적으로 조직화한 것도 아니었다. 남편이나 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를 실천했다. 여성들은 지역시장으로 자급사회를 만들었다.

여성들은 자신을 착취하는 모든 권력들, 즉 남편과 국가와 초국적 자본에 동시적으로 맞서 투쟁했다. 이러한 권력들은 서로 긴밀히 얽혀있다. 정부는 여성을 무보수 노동력으로 유연화하려는 행위자로서 남편을 몹시 필요로 했다. 글로벌 가부장제의 우두머리인 국제자본과 그 기관들은 막대한 수출 생산과 부채의 늪을 통해 남편을 통제하고 조정했다.

여성들은 지배체제 안에서 '가정주부화 된' 개인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전통적이고 집단적인 여성의 조직을 고수했다. 그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 밖에서 이 조직을 다시 풍성한 지역생산과 시장체제로 만들고 확장시켰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스스로 지역의 독립적인 자급기반을 만들었고, 자신의 노동력을 남편과 정부 그리고 초국적 기업에서 되찾았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남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을 반대해서 정부, 자본과 함께 그들을 공격할 것인지 말이다.

이렇듯 거대한 전 지구적 세계경제가 여성들의 일상에 폭력적으로 침투하고 식민화 하는 것에 대한 저항 사례가 이제는 제법 많이 늘고 있다.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자신들의 존재양식과 자아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 행복감, 경제능력,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 온 몸에 아로새겨지는 한과 좌절, 고단함과 분노, 그것까지 포함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역사를 바로 지금 이 공간, 삶의 현장에서 감각하며 느끼며, 생각하는 여성들의 몸뚱이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5. 새로운 살림문화 운동을 제안한다

살림을 사는 일 :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교육하고, 가족들의 의식주를 관장하는 일이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 한 가정과 관계되는 사람들-친인척,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챙기는 일이다. 또한 그들을 정서적으로 돌볼 뿐 아니라 경제적 경영도 책임지는 일로서, 이는 본래 생명을 살리는

5)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 - 틸젠, 앞 책, 2013.

일이자 삶을 윤곽하게 하는 것도 책임지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역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이 담당하여 왔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 여성들의 지혜와 재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역사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폄하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가부장문화가 강화되어 올수록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성 역할분리는 강화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남녀 간의 역할을 고착화 윤리화 하는 주자학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녀 간의 내외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더구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여성들의 일, 살림은 더욱더 여성들에게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구조화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의 대가는 화폐로 지불되지만 여성들의 소위 살림살이 노동, 가사노동은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부분노동, 즉 무보수 노동이다. 필요에 따라 희생과 헌신의 숭고함을 말로만 칭송하는 것이 유일한 대가인 것이다. 더구나 안팎으로 집안일과 바깥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는 곧 이중, 삼중의 노동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들의 살림살이 노동은 자본주의 안에서 비 자본주의적 노동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전 지구적, 전일적 지배 속에서도 비자본주의적 경제와 문화는 언제나 있어왔다. 여성들의 살림살이 경제, 살림 문화가 그러하고 형무소에서의 노동, 영세 가내수공업, 가내 서비스 산업, 전 세계의 섹스산업 등의 착취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비 착취적 형태로서 자신들이 만들어 낸 부를 전유하는 수많은 자영업자 혹은 독립생산업자들, 자급 경제 집단들, 회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잉여를 함께 공유하고 분배하는 수많은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그러하다. 이 후자의 비착취적 형태의 비자본주의적 경제와 문화는 자율적 경제, 대안적 경제의 새로운 형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들의 살림 경제, 살림 문화도 현재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떠받드는 최하의 경제 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경제, 자율적 문화, 새 판 짜기의 기초 단위로서 존재케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여성들의 가사노동인 살림살이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커다란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여성들이 비자본주의적이고 대안적인 자율경제의 새로운 주체이자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수동적으로 간혀있는 방식도 식민화된 방식도 아닌 자율적 경제, 자율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살림 문화를 새롭게 사유하고 접근하며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살림정신, 살림문화를 새롭게 사유하고 의미화하면서 여성 자신도 살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지역과 지구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여성의 살림노동, 살림경제, 살림문화가 새로운 대안경제, 대안문화로서 세계를 개조하는 새 판 짜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안에서 ‘살림’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유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동학과 동양사상⁶⁾을 기반으로 한 일군의 움직임과 진보적 기독교 중심의 신학계에서의 움직임

6) 『한살림선언』, 한 살림창립총회 문건 1989. 이들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죽임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살림’이란 용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1989년 한살림 창립총회에서 한살림선언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장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등이 공부모임을 통하여 모아진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문명세계가 물질적

입)이 그것이다.

또한 남성경제학자인 홍기빈은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⁸⁾를 썼는데 그는 자신이 ‘살림살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칼 폴라니의 유저 「인간의 살림살이(The Livelihood of Man)」이었다하며 자신의 경제학을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말 살림살이는 재미난 말이었다. 비록 모두 너무나 일상적이고 범상하게 여겨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말이지만, 살림살이는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으로 구성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살림과 살이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똑같은 뜻의 말을 두 번 겹쳐서 쓰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것이라면 결국 ‘남을 살린다’와 ‘내가 산다’는 두 뜻을 겹쳐 놓은 것이 될 터인데, 어째서 상당히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동작을 마치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합쳐놓은 것일까? 결국 가능한 대답은, 이 말을 만든 이들은 살린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즉 산다는 것은 본래 그 자체가 ‘함께 산다’는 것이 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남을 살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불가분으로 엮여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깊은 의식 속에서 면면히 전해지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한 나머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범범하게 넘기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되새김질하기 위해 빗금을 그어 살림/살이라고 쓰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과거로부터 진행되어온 여성들의 살림살이, 살림의 문화를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사유하고자 한다.

살림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운동화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입장은 여성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그것은 신체적 여성주의⁹⁾로부터 출발하여 생태적 여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더 정확하게는 살림

풍요를 가져다준 반면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는 지구의 생태적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선언을 시작한 다. 핵 위험의 공포, 자연환경의 파괴,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약순환,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초를 발견하며 한 살림의 정신을 선언하였다.

7) 또한 진보적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에큐메니칼운동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살림’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개신교의 역사는 교파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그 안에서 교회의 일치운동이 일어난다.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ism)이 그것인데 에큐메니아의 어원은 라틴어의 oicuis이며 이는 원래 house(집)나 household(가정일,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로서 economy(경제), ecology(생태)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에큐메니칼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교회의 일치, 생명의 하나됨, 분열과 갈등을 넘어선 ‘살림’이란 용어에 주목한다. 안병무 박사의 한국신학연구소에서는 한 때 ‘살림’이란 제목의 잡지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8) “지금까지 약 300년 간 존재해온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을 찾고자”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 300년 동안 인류의 의식을 지배했던 시장 만능주의 경제사상이 모든 이들로부터 근본적인 회의를 사고 있는 지금이” 살림/살이 경제학을 “최소한 토해내기라도 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라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단번에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다고 하면서 경제학하면 바로 ‘돈벌이 경제학’에 쩌든 사고방식을 성찰케하고 남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아야 하는, 즉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제학을 말하고 싶었다 한다.

9) 케더린 김슨은 샤론 마커스의 강간에 대한 논문(Marcus, S. (1992)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을 통해 지구화의 위력과 폭력성을 처음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침투(Penetration)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구화와 강간은 유사하다. 마커스는 강간에 대한 언어는 “강간은 항상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성은 항상 이미 강간당했거나 혹은 강간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데 이것은 “여성들에게 공포와 복종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은

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라 이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살림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로 인한 지구화는 우리의 일상을 공격적이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배한다. 침투와 침략, 경쟁과 짓밟음, 죽임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문화가 낳은 폭력성은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여성문화운동이 여성의 일상,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언어와 의미화를 만들어 내는데 주력해 왔다면, 여성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부터는 전지구적으로 지배하는 신자유주의경제와 문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과 새로운 문화적 실천(여성이 주체가 되어)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살림문화운동을 제안한다.

살림문화란 ‘생명을 살리고 돌보며 유지, 지속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인 것이며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 살림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지역과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가치체계, 신념, 세계관 등을 포함한 삶의 방식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즉, 상생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가정 안팎에서 생명을 살리고 지속시키는 삶의 방식의 총체’를 이른다. 현재상태의 가사노동은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시키는 관계, 서로 소외된 관계속의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즉자적(an sich) 상태, 그 자체로는 진정한 살림문화라 할 수 없다. 살림문화란 원래의 살림의 정신과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의 총체로서 대자적(fur sich) 살림인 것이다. 즉 의식적으로 살림을 지향하며, 모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살림문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 살림문화운동은 여성적 사유에 기초한 새판 짜기이다. 그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의 일상을 위로부터 덮어씌우는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공간,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출발이다.
- 살림문화운동은 자율경제, 지역경제, 자급경제, 공동체경제, 협동경제에 기반하거나 이를 지향하면서 만들어 가는 문화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경제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 살림문화운동은 새로운 주체형성의 정치이다. 이제까지의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여성해방의 과정을 통해 변화한 여성들은 스스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살림의 공간, 여성주의의 윤리적 공간, 상생의 문화공간을 개인과 집단 주체들은 생계와 새로운 삶의 방

본질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세며,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강간을 자행할만한 완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젠더화된 폭력의 문법에 따르면 남성은 폭력과 공격의 주체이다. 그들의 몸은 단단하고 딱찬 발사체같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 여성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거나 묵인, 설득하는 전략을 펼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강간을 멈출 수는 없다. 젠더화된 폭력의 문법 안에서 여성은 두려움의 주체이고 여성의 몸은 보들보들 텅 비어있고 약하고 열려있다고 주장되며, 여성의 몸은 약하고 더러워지기 쉬운, 침투당하고 상처입는 것”으로 묘사된다(Marcus, 1992, 398p). 강간의 언어와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언어 사이엔 명백한 연결고리들이 많다. 발전주의 이론의 남근중심성을 주목하면, ‘침투’, ‘침략’, ‘쳐너지’같은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커스는 그런 식의 서사를 우리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며, 희생자 역할을 거부하고 새로운 주체되기를 요구한다. 김سن도 새로운 주체로 지구화된 경제체제를 넘어 여성들의 삶의 공간에서부터 주체되기를 하자고 한다.

식, 상호의존성, 상호호혜성을 논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뚱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윤리적·사회적·철학적 문제는 개인을 경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이 경제에 연결되어있는 개별화,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수세기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이런 식의 개별성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촉진시켜야 한다.¹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며 단순히 새로운 생각과 정서를 하루아침에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과 정서들을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살림문화운동은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함께하기 혹은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폭넓고 분산된 형태의 집단행동, 혹은 함께하기도 포함된다. 반드시 고정된 공간, 제한된 장소 안에서의 함께하기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너무 평면적이다. ‘함께하기’, ‘공동체’의 개념은 일시적인 공동체, 축제적 공동체, 헤쳐모여를 반복한다든가 따로 또 같이하기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연계와 열린 가능성들을 복돋우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함께하기를 포함한다.

살림문화운동은 사적이자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이제까지 근대사회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분리되어왔다. 그러나 살림문화운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횡단하며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을 횡단한다.

살림문화운동은 차이를 생산적으로 사유하고 상생하며 연대한다. 살림을 시도하는 다양한 개인과 크고 작은 집단들은 다층적이며 비 위계적 방식, 리즘적 방식으로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 경기도 살림문화 사업의 제안

이 연구는 새로운 살림문화를 꿈꾸며 출발한 사업으로 일상으로부터 새롭게 사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연구이다. 새 판 짜기를 도모하는 이 살림문화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최고 이익 창출이 최고선으로 군림해온 지난 3백년간의 서구 문명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오십여 년 동안 한국식 압축적 근대화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은 이 반세기 동안 전쟁의 폐허, 세계 최하의 극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월은 한 사회의 지속 가능 삶을 보장하는 자연과 생존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간으로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는 삶, 마을 공동체, 오랫동안 공유해온 공동체적 혼이 깃들인 문화를 파괴시키면서 이것들을 시장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슈바,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인류 문명을 진단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인류는 반세기, 한 세기 이상 지속될 수 없다

10)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근거 없는 엠포용 진단만은 아님을 우리 자신과 이웃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살림문화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지구촌 살림 문명을 열어가는 작업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림문화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할 때 두 세기 전 ‘빙허각 이씨’라는 대모(大母)가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규합총서』라는 살림문화 유산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빙허각 이씨라는 ‘흔 어머니’의 유산에 의지하여 우리가 맥을 놓치거나 슬럼프에 빠진 살림 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현대적으로 계승해가는 것이 21세기 살림 문명을 열어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차원의 살림문화 형성과 공유, 그리고 온전한 하나의 살림마을이 두 곳, 세 곳, 네 곳으로 계속 번져가면서 이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반도 곳곳과 한반도 넘어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살림문화 사업은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최고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로서 체계적으로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진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가 이러한 연구진의 살림문화 사업 전망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경기도를 21세기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살림 문명을 열어가기 위한 중심 살림터로 자리매김 해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살림문화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째, 이 연구는 살림문화형성을 위한 새로운 실천을 위한 것으로서 새롭고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만들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여성들의 일이었고 지금도 여성들의 일인 살림살이 노동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 생산,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실천을 널리 공감하고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카데미한 연구는 학자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지에만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 특히 여성 시민들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언어의 창출과 공감, 공유와 확산의 장으로 ‘축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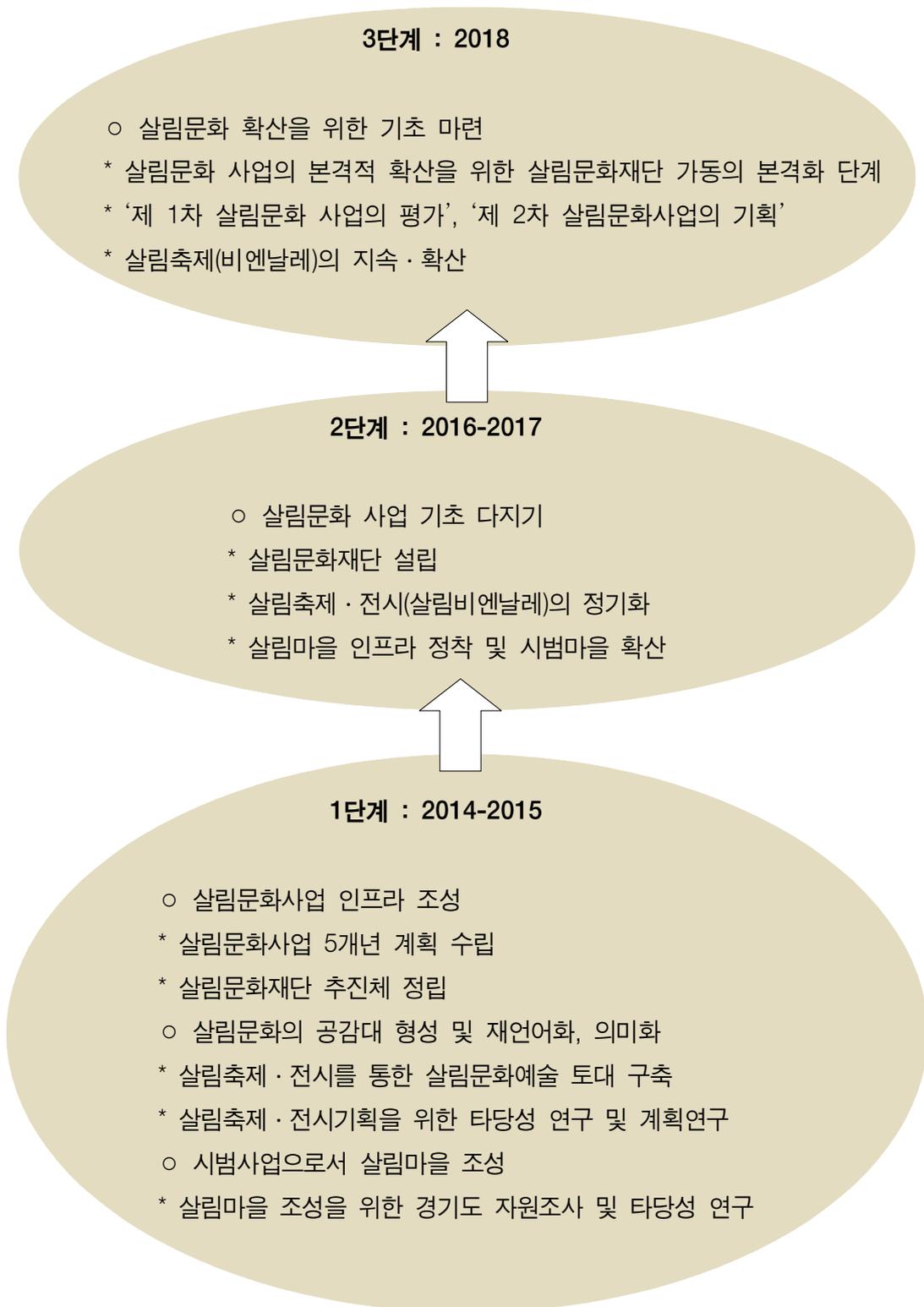
둘째, 새로운 살림의 공간의 형성과 그 주체의 형성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살림문화의 실천은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새로운 윤리적 삶의 공간, 상생의 문화공간 말이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주체들은 생계와 더 나은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상호 의존성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뚱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살림마을’을 제안한다.

셋째, 크게 이 두 가지로 범주화된 살림문화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밝혔던 세 번째 지향, ‘함께 만들어가기’를 충족시켜야 한다. 살림문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그것이 축제공간이든 살림마을 공간이든, 함께하기 혹은 공동체(community)

의 개념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폭넓고 분산된 형태의 집단행동, 혹은 함께하기도 포함된다. 반드시 고정된 공간, 제한된 장소 안에서의 함께하기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너무 평면적이다. ‘살림마을’을 말할 때 당연히 물리적이고 지역적 공간에 기반할 것이지만 ‘함께하기’, ‘공동체’의 개념은 일시적인 공동체, 축제적 공동체, 헤쳐모여를 반복한다든가 따로 또 같이 하기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연계와 열린 가능성들을 북돋우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함께하기를 포함한다.

이로써 살림문화 사업의 실천적 범주로서 ‘축제’와 ‘살림마을’, 크게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단계(2014~2018)



1) 살림문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살림문화 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주제, 새로운 실천, 새로운 조직 등 이를 잘 담아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사고의 틀 뿐 아니라 독자적 조직의 틀을 갖추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첫째, '살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자적 조직 '살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살림문화재단 추진체를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 1차(2014~2018)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살림문화사업의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첫 준비로서 요구되는 일이다.

둘째, 살림문화의 재언어화, 재의미화 작업과 이를 널리 공감하게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살림문화축제를 제안한다. 이 틀 안에서는 전시, 공연, 심포지움, 워크샵, 장터, 카페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소통과 살림문화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감각적, 혹은 무의식 수준으로까지 대중화시키는 토대로 필요한 일이다. 2015년에 이를 실시 할 수 있게끔 2014년에는 살림문화축제, 전시계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축제의 장에서는 살림문화사업의 원천으로서 '빙허각 이씨에 대한 전시'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일상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출발한 자수를 예술적 차원으로 인정받게끔 새로운 차원의 전시와 심포지움을 한다. 빙허각의 정신을 오늘날 이어받는 각종 살림꾼들을 칭찬하는 기회를 갖고(예 : 일상생활을 세밀히 기록하는 사람들, 살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알뜰함과 나눔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 상도 주며, 각종 의식주의 지혜를 뽑내는 행사를 함으로서 일상문화를 한층 고양시키기 위한 일상적 살림의 축제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대안적 삶, 대안적 문화의 방향을 도모하고(건강하고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 다양한 생활공동체, 아름다움이 있는 노동, 느낌의 미학, 상생과 나눔의 협동체 등) 다양한 방식(놀이로, 공연으로, 장터로)으로 재현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축제가 보다 특별한 공간 안에서의 고양된 시간, 자극을 주고받는 시간, 살림을 다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일상적 삶의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림'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살림마을을 통하여 자율적이고도 자급적인 경제공동체,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육아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협동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 새로운 유통, 새로운 교환체계를 도모한다. 그 위에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훈련의 장, 실현의 장으로서 마을미디어 사업, 치유와 협동의 공동체 정원, 텃밭가꾸기, 공동체놀이, 공동체예술 등 총체적으로 일상의 재구성을 차례차례 도모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 살림마을을 하나씩 둘씩 실현시킨다.

이렇게 1단계가 지나면 이를 정기화하고 정착시키면서 2단계(2016~2017) 다지기 단계가 될 것이다. 지난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살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살림문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될 것이다.

2018년은 3단계로서 그동안 진행해 온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평가'와 '제 2차 살림문화 사업

의 계획'이 진행되는 해로서 1차 사업의 마무리와 2차 사업이 교차되는 동시에 살림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2) 살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첫째, 오늘날 여성들은 억압적 삶의 방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면, 비주체적인 것이라면 기꺼이 싱글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주체적인 삶,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돈을 벌고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가 된다면 아이 갖기는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다. 국가는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앞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획기적이거나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실천의 주체,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고 지자체나 정부는 여기에 체계적으로 응답(response)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여성들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응답할 수 있는 지점,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을 이제까지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살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다.

둘째, 살림문화축제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약 1000여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축제에 대한 친근성이나 우호적인 인식은 매우 약하다. 이는 60, 70년대의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관주도하여 만들어진 천편일률적이고 박제화된 축제, 90년대 이후 지나치게 경제적 목적이 앞선 축제, 지역홍보수준의 지역 축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촌공동체 시절의 세시풍속으로서의 설날, 추석, 단오, 대보름만큼도 사람들에게 충일감, 설렘,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공유하게 하는 축제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십만여 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다. 이중 약 2만여 개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볼만한 축제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통과의례적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들이다. 흔히 축제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것으로 인식되며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축제는 비생산적이고 비일상적이다. 그러나 축제는 일상의 생산적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축제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잠시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다. 축제는 일상의 불만과 갈등을 온통 뒤흔드는 광기와 재미를 체험하면서 다시 일상의 활력을 넣어준다. 일상과 다른, 전도된, 이것저것 섞여있는, 다층적인 것을 체험하며 더불어 재미있는 가운데 재주를 칭송받기도 하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기도 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 활동이기도 하다. 때로는 엄밀함과 정확함, 때로는 대담성, 능숙한 솜씨, 영리한 두뇌활동을 필요로 한다. 충만한 자유 속에서 창의력은 고양되고 지적발달과 정신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삶이 불안하고 사회가 위기에 빠져있을수록 사회는 갈등의 해소와 새로운 모색을 필요로 하며 축제는 모의

적 방식으로 덜 갈등적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모색하고 체험하는 장이다. 삶은 관념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다. 몇 마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사만큼이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것의 재배치를 통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축제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게 한다. 바로 이러한 축제의 성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살림문화’는 축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의 첫 단계로서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즉 살림문화축제는,

- 빙허각 이씨의 삶과 「규합총서」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첫사업으로서 살림문화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축제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로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운동의 방법으로 매우 적절하다.

셋째,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앞머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전지구적 경제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율적인 경제·문화 공동체로서 여성주도적인 살림문화를 위해 살림마을의 구체적 실현이 이 첫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살림마을, 살림공동체의 형성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이자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다.

더구나 빙허각 이씨가 집대성한 살림문화가 2013년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듯이 인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온전하게 삶의 맥락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현재 농촌마을의 여성노인들은 이러한 문화를 체득한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생전에 이분들의 살림문화를 청장년 여성들이 물려받아 사는 농촌형 살림마을은 문화보존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한 살림문화의 보존과 전수는 중장기적 생태·공정·책임 여행의 자원이 될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여행의 추세로 등장하는 생태여행, 공정여행, 책임여행에서는 현지민의 삶을 가능한 한 현지민처럼 경험하는 것이다. 관광지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문화의 체험과 공유가 중요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빙허각의 살림문화를 온전하게 계승하는 농촌마을은 이러한 대안여행의 적소가 될 수 있다. 국내의 십여 개에 지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공정여행사들은 한국인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는 여행만을 진행하며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공정여행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안적 농촌공동체로의 ‘살림마을’ 공정여행·생태여행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살림문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가. 201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 연구사업

- ① 살림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살림문화 자원조사 및 타당성 연구(2014년 5월~8월)

② 2015년 살림문화축제와 전시계획연구(2014년 6월~12월)

③ 제 1차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 연구(2014년 6월~12월)

* 제 1회 살림문화 심포지움 및 살림문화선언: 2014년 4월(이 연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시행)

□ 시범사업

· 방법 : 연구사업 중 첫번째 항목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림마을을 시연한다(이것은 마을을 선정 하여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조직하여 실행하며 부분적으로는 재현의 방식을 취한다).

· 기간 : 2014년 5월~10월

· 발표 : 2014년 10월

· 내용 :

○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 도서관과 놀이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거실, 카페 등 다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운영 프로그램. 개인적인 영역이었던 육아와 교육분야의 살림부담을 공동으로 나누어진다.

- 이는 여성들의 살림정보 교류 및 여성들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살림공동체 형성의 한 형태이다.

- 장난감과 책이 같이 있는 넓은 거실과도 같은 공간: 한두살의 유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 책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

- 엄마들의 카페 : 엄마들과 함께 운영하며 과자를 굽고 간식을 만들기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카페기능도 한다(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이사이 쉬기도 하며 수다를 통해 정보교환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한다).

- 북카페 : 초,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책, 책상이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도서관

-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과 정원

- 함께 조리할 수 있는 부엌

※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으로 놀며 공부하며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 : Family Place Libraries, Communal Garden, Mother' s Center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Family Place Libraries (www.familyplacelibraries.org)

1996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처음 생겨남, 관장이었던 Sandy Feinberg가 자신의 육아 경험을 통해 도서관을 변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울려 프로그램 개발

- 책과 장난감이 같이 있는 커뮤니티 룸을 만들

- 책과 놀이를 통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유아기, 아동기의 놀이, 책 일기, 사회성이

평생을 좌우함

- Family Place Library Training Institute 설치: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직원들을 훈련시킴, 현재 미국 전체로 퍼져나감

▲Mother's Center (MINE, Mother's Center International Network 참조)

대표적 풀뿌리 여성 커뮤니티 운동, 독일에서 처음 시작,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영국 미국 등 전 세계로 번져나감

- 살림 친화적으로 아이, 엄마가 함께 모이는 장소를 제공.
- 여성들을 고립된 가정의 영역에서 끌어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 육아, 양육, 살림의 질을 높임
- 다문화 가정의 여성, 아이들이 공동체에 융합될 수 있게 함
- 역할 : 아이들의 놀이 그룹 형성, 놀이방, 육아지원, 장난감 책방, 베품시장, 쇼핑 서비스, 페스티벌, 언어, 컴퓨터 교육, 수선, 바느질, 퀼트, 노인 돌봄, 식사, 세탁 등 살림의 전 영역을 도움 받을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공동정원(Communal Garden, Community Garden), 공동텃밭

도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공동의 정원 텃밭, 공동으로 정원을 소유, 같이 경작. 유럽에서는,

- 신선한 먹거리를 같이 경작해서 먹음, 공동체 형성
-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역사가 오래됨, allotment garden, 세계 대전시에는 'Victory Garden'이라고 불림, 영국 독일의 경우,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자연 경작에 대한 깊은 향수가 있음, 공동이 함께 공유하는 텃밭 운동이 일어남, 1, 2차 대전 시에 식량 공급의 원천이 되어 Victory Garden이라고 불림.
- 미국의 경우 Community Garden은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1979)' 이 대표적 케이스 : 같이 정원, 혹은 텃밭을 가꾸면서 커뮤니티 형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함께 경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인다. 축제, 베품시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행사 주민들이 진행, 생태교육, 아이들 교육효과도 좋음.

○ 벼룩시장

- 안 쓰는 물건 가져와 팔기

○ 물물교환 장터

- 서로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교환하는 장터(미리 비슷한 가치를 갖는다 생각되는 물건에 맞는 색깔 별 스티커를 붙여 교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살림마을 매뉴얼 전시

- 살림마을이 필히 갖추어야 할 요소들-프로그램, 인테리어의 적정성, 봉사자 훈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림마을 매뉴얼로 만들어 참고하게 한다.

○ 서클댄스 공연

- 평화와 치유의 춤, 상생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술 프로그램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행해지는 서클댄스를 함께 배우고 공연한다.

○ 음식 나누기 파티

- 규합총서에 있는 음식 중 몇 개의 레시피를 시연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와 나눈다.

나. 2015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전시프로그램을 「빙허각 이씨와 살림문화」로 한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일정한 장소(예 : 경기미술관)를 정하여 살림축제를 동시에 진행한다.

□ 전시·교육·축제 사업

① 프로그램 1 : 빙허각 이씨와 살림문화

○ 전시 프로그램

- 빙허각의 삶과 규합총서 소개(총론적 소개)
- 그림연극으로 보는 빙허각 이씨의 삶(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전시 벽면에 길게 펼쳐진 형태로 한다)
- 규합총서의 실물 전시 및 주식의, 봉임축, 청량결, 산가락, 술수략 중 일부를 오늘날의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다시 써서 전시한다.
- 규합총서 주사의(술과 음식)편에 수록된 음식을 재연하여 전시한다.
- 미니어처로 규합총서의 내용들을 재현한다.
- 영상으로 보는 규합총서(약 7분 정도의 소개와 해설로 비교적 자세히 오늘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소개한다)

○ 참여 프로그램

- 게임으로 이해하는 규합총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퀴즈놀이
- 바닥에 연관어를 찾아 뛰어 다니는 오랜말 놀이같은 컴퓨터 게임 놀이
- 빙허각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 공연 프로그램

- 구연동화로 듣는 빙허각 이씨의 삶과 자유 토론
- 빙허각에 대한 노래 공연(작사·작곡을 의뢰한다)
- 빙허각에 대한 연극 공연(전시장을 함께 돌며 한다)

② 프로그램 2 : 살림 속에서 피어난 자수예술 (5개 섹션)

○ 제 1 섹션 : 근대 자수와 여성

자수를 미술대신 선택하였던 근대기의 신여성 자수가 들이 있다. 수원에서 태어난 나사균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데 동경 여미전에 유학하였던 나사균, 박을복 같은 이들을 추적하고 잊힌 여성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근대 자수전을 열수 있다. 여성의 역사 쓰기라는 맥락에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예 : 나혜석, 나사균, 박을복, 이장봉의 작품 전시, 인터뷰, 문헌 연구 등으로 구성

○ 제 2 섹션 : 자수와 현대미술

자수는 그 노고나 미적인 아름다움에 비해 일반인의 평가가 부족한 부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나 훌륭한 자수가 많다. 본 논문에서 조사 한 이상으로 더 많은 자수를 찾을 수 있고 작품을 모을 수 있다. 예술작품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수는 전시를 하면 시각적으로도 볼거리가 많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미술 작가 중에는 현재 여성주의에 공감하여 자투리 천이나 실과 바늘을 미술의 재료로 쓰는 여성작가들도 있다. 김수자, 신경희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인데 이들과 자수가 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도 여성의 일을 다시 평가 하는 살림 담론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본다.

○ 제 3 섹션 : 바느질하는 여자들, 자수 명장

자수 명장, 전통 자수 작가들, 그 미적 품격이 예술로 평가되어야 할 작품들을 전시한다.

예 : 한상수, 김계순, 김현희, 손인숙, 윤희순의 작품 전시와 이력, 인터뷰로 구성한다.

○ 제 4 섹션 : 세계 퀴트 자수 페어와 축제

여성들이 집에서 남은 천조각과 실, 바늘로 하는 퀼트는 한국의 자수와 비슷한 것으로 여성주의가 부상하면서 재조명되었다. 현재 퀼트 축제, 전시, 페어는 뉴욕, 휴스턴, 영국, 일본 등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 퀼트 축제들과 연계하여 국제 퀼트 축제, 페어를 한다. 시상식도 한다.

영상물로 소개한다.

○ 제 5 섹션 : 나도 자수 예술가입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이름 있는 공예가로, 예술가로 등극케 하는 참여 공모 전시.

③ 참여 프로그램

- ‘나도 바느질 잘해요’ : 흔히 쓰는 필통이나 생활가방을 어린이들이 간단히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수다 떨며 조각보 만들기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공동의 작품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베갯보에서부터 이부자리, 식탁보, 행주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워크샵.

○ 강연

- 전통 자수의 도안이 상징적 의미를 강의로 듣는 프로그램
※ 위의 프로그램까지는 전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살림문화 전반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낸다.

○ 토론

- ‘토크 쇼’ : 나에게 살림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방송사 아나운서나 전문 MC, 여성학자, 일반 여성들이 함께 수다 떠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론 프로그램

⑤ 학술 프로그램

- 21세기와 살림문화 : 학술 프로그램으로서 관련학자, 공무원, 실천하는 NGO들이 모여 진행하는 살림문화사업의 의의를 공유한다.

⑥ 공연 프로그램

- 연극 “살리고 살리고!” : 살림의 정신을 웃으면서 공유하는 연극. 노래와 춤, 대사가 함께하는 연극.
- 서클댄스 : 치유와 명상이 있는 평화의 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임을 몸으로 체험하는 춤. 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춤
- 노래하는 여자들 : 한영애, 이상은, 말로, 안혜경, 지현 등 여성적 감성과 메시지가 함께하는 여성 디바들의 공연.

⑦ 참여 프로그램

- 어머! 변태했어요! : 잘 입지 않는 옷, 커튼, 테이블보 등의 변신. 의상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옷, 아이템으로 변신시켜보자. 새로운 액세서리와 함께 코디한다.
- 알콩달콩 궁합 맞추자 : 궁합이 맞는 음식들, 친구와 연인, 부부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궁합 맞는 요리도 만들고 상도 받고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고!
-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 살림마을! :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참여, 꿈도 꾸고 상도 받고!
*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 나도 정크아트 예술가 : 버리는 폐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보자. 우리집, 우리마을을 꾸미는 설치미술도 우리가 한다.
- 살림장터 : 서로 좋은 시장
- 물물교환장터 : 안 쓰는 물건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장터

○ 벼룩시장 : 내가 안 쓰는 물건들 다른 사람에겐 유용하다.

○ 공예장터 : 내가 만든 물건들, 공예품들을 팔아본다.

○ 북카페 : 집에 있는 책들, 가지고 나와 주고, 팔고, 읽고!

○ 음식장터 : NGO들, 작은 모임들에서 각종 음식을 장만해와 솜씨도 뽐내고 입도 즐겁고!

- 단체 부스 : 대안문화, 살림문화의 공동체들,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며 새로이 회원들도 모은다.

- 기업홍보 부스 : 친환경, 살림문화와 관련한 기업들에 기꺼이 부스를 내 주어 프로모션할 기회를 준다.

□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의 교육사업

살림문화사업은 축제기간 이외에도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도 물론 매우 필요한 일이다. 특히 많은 교육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해은 연구자가 제안한 ‘규합총서 읽기’나 ‘전통요리교실’이 그러하다.

① 고전의 향기 : 『규합총서』 읽기

○ 취지

- 여성이 쓴 생활대백과서 『규합총서』에 대한 원전 강독을 통해서 전통시대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지역 인물에 대한 고취를 통해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인다.

- 최근 사회 각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데서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직접 원전(原典)을 접하는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받는 추세다. 현재 『논어』나 『맹자』, 『주역』 같은 고전(古典)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해당 지역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강독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경기 여성 인물과 관련하여 강독회를 연다면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인문학 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

○ 목표

- 빙허각이씨와 『규합총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지역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지역민으로서 참여의식을 이끌어 낸다.
- 원전을 직접 접해보므로써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고취한다.
- 원전 읽기를 통해서 다른 인접 분야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내용

- 『규합총서』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로 쓰여 있다.
- 한글로 쓰였지만 옛 한글인데다가 한자어가 많다.
- 전체 내용을 강독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므로 앞의 두 장(음식/의복)만 집중적으로 강독한다.

○ 방법

- 기간 : 2개월 코스/탐방여행 1회
- 강사 : 전통시대 음식과 의복 전문가나 역사학자
- 인원 : 20명이상
- 강의교재 : 수강생들에게 배포할 강의교재를 미리 제작한다.

② 전통요리교실 : 『규합총서』 음식만들기 교실

○ 취지

- 『규합총서』의 조리법을 익혀 우리 민족 고유의 맛과 멋을 체험한다.
- 『규합총서』에 나오는 조리법을 통해 양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 청주에서는 이 지역 요리서인 『반찬등속』(1913년)을 연구하는 (사)청주반찬등속보존회나 반찬등속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있음

○ 목표

- 『규합총서』에 나오는 주요 요리법을 소개하여 전통시대 맛에 대해 즐거운 체험을 유도한다.
- 『규합총서』요리 보존회나 연구회가 결성될 수 있게 한다.

○ 내용

- 『규합총서』의 조리법은 서울 지역 음식으로 추정됨
-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하여 ‘용인 오이지법’이 주목
“오이 백개를 꼭지 없이 하고, 흑 상한 것 가리어 항아리에 넣고 맑은 뜨물과 냉수를 섞어 소금을 싱겁게 타, 오이 넣은 항아리에 붓고, 이 이튿날 내어 아래 위로 바꾸어 넣고, 또 그 이튿날 또 이렇게 하여 날마다 여섯 일곱 번 하여 익히니 용인 외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 장, 김치, 밥과 죽(오곡밥, 양박, 타락죽, 우분죽, 구선왕도고 의이, 삼합미음, 개암죽, 울무의이죽, 호도죽, 갈분 의이죽), 차, 각종 반찬(완자탕, 복어탕, 열구자탕(신선로), 송이찜, 붕어찜, 계찜, 생치구이, 동아선, 전복다식, 전유화, 생선계장전유화, 화채, 죽순채, 월과채, 떡볶이, 죽편, 쇠고기순대, 제피수정, 툇툇이좌반, 편포, 청어젓, 게젓, 연안식해법, 용인외지법, 명월생치채, 전복침채, 동치미), 냉면, 생선, 육류, 과자, 음료, 술(구기주, 도화주, 연엽주, 와송주, 국화주, 매화주, 연엽주, 굴주, 두견주, 소국주, 과하주, 감향주, 일일주, 삼일주, 송절주, 소주), 별식 등 각종 음식 조리법이 다양하게 수록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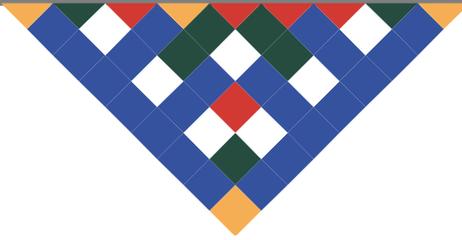
- 정례반과 일일체험반을 운영한다.
- 정례반의 경우 2개월 코스로 운영한다.
- 최소 15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제한
- 정례반의 경험을 다듬어서 향후 경기도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일일체험반을 운영할 수 있게 발전시킨다.

이 밖에도 연극·연극·영화·춤·미술·사진 등의 예술 프로그램도 일상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아트’나 ‘마을 미디어 사업’도 살림문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따로 다른 살림문화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주체, 여성으로부터 새로운 살림 문화가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이 살림문화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는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내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작은 연구를 마친다.



19세기 “규합총서”의 탄생과 살림의 지식화

발표 :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19세기 『규합총서』의 탄생과 살림의 지식화

정 해 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머리말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여성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노동(집안 노동에서 집밖 노동으로의 이동)을 분리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페미니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화두였다. 한편으론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으로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 가족, 즉 남편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무르는 가족은 결코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 세계와 가정생활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가내수공업의 쇠락과 급여 노동의 발달을 전제로 한 19세기의 창조물이다.¹¹⁾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가족의 생활공간은 생산과 노동이 함께 집약되어 있던 노동 공간이었다. 현대처럼 가정이 사회적 노동에서 분리되지 않고 생활 경제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다.

또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노동만이 가치 있는 노동인가하는 문제로 짚어봐야 한다. 세계적으로 근대 이후 화폐 경제를 우월하고 보편적인 경제 형태이자 역사적인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지로 상정하면서, 화폐 경제 이전에 행한 각종 노동을 폄하하였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주류로 자리잡기 이전에 인간의 살림살이 속에 묻어 들어있는 수많은 고려와 지혜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¹²⁾

이 글에서 소개할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은 『규합총서(閩閩叢書)』라는 살림 전문서를 저술한 여성이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이 무렵 많은 여성들이 저작활동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서를 낸 여성은 흔치 않다. 대부분이 소설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규합총서』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기념비적인 저술이라 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론 빙허각은 생활인이었다. 빙허각이 현실 경제에 눈을 뜬 계기는 1806년 남편 숙부인 서형수가 정치 사건에 연루되어 온 집안이 몰락하면서부터였다. 한양을 떠나 외곽지역으로 집을 옮긴 빙허각은 집안 살림과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 그러면서 빙허각은 이때의 지식과 경험을

11) 크리스토퍼 래쉬 지음 / 엘리자베스 래쉬 쿨 역음, 오정화 옮김, 『여성과 일상생활』, 문학과지성사, 2004, 128쪽.

12) 홍기빈, 『살림 / 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날개, 2012.

허투루 넘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집안 여성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규합총서』다.

이 글은 오늘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살림/살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면 빙허각에 주목하였다. 빙허각이 남긴 『규합총서』에 나타난 살림 문화와 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 살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보고자 한다.

2. 빙허각 이씨는 어떤 인물인가?

1) 빙허각은 누구인가?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은 아버지 이창수와 어머니 유씨(柳氏)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다. 빙허각의 집안은 세종의 열일곱째 아들인 영해군의 후손으로 소론(少論) 가문이었다. 아버지는 이조 판서는 물론 예문관과 홍문관 제학, 관돈녕부사 등의 요직을 거친 고위 관료였다. 부인이 당대 소론 명문인 서명빈의 딸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일찍 죽자, 유담의 딸과 다시 혼인을 했는데 빙허각은 그의 막내딸이었다.

빙허각의 성격은 불같고 강해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였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시경』이나 『소학』을 읽어주면 그 뜻을 바로 깨쳤다고 한다. 커서도 기억력이 뛰어나고 공부하기를 게을리 않고 여러 서책들을 섭렵하였다. 그리고 시(詩)나 여러 가지 글을 잘 지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사(女士)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다.

빙허각은 15세에 세 살 연하의 서유본(徐有本, 1762~1822)과 혼인하였다. 시가는 소론의 명문가이자, 이용후생을 위한 학문을 강조하는 실학자 집안으로 박지원·박제가·이덕무 등과 교류하였다. 학풍은 금석·물·불·별·달·해·초목·금수 같은 객관적 사물을 탐구하는 명물학(名物學)에 특장을 보였고, 농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시할아버지 서명응의 『고사신서(攷事新書)』(1771년), 시아버지 서호수(서유본의 생부)의 『해동농서(海東農書)』(1799년)가 그것이다.

시가의 학풍은 빙허각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규합총서』에 시아버지가 지은 『해동농서』가 들어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빙허각은 시가 학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뿐만 아니라 초목이나 금수 등 명물학도 탐구할 수 있었다.

2) 빙허각과 남편 서유본의 부부 사이

빙허각의 남편 서유본은 과거시험이나 관직과는 인연이 많지 않았다.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응시했으나 낙방의 연속이었다. 43세에 임용된 동몽교관(童蒙敎官)이 그의 유일한 벼슬이었다. 더구나 1806년 숙부 서형수가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오르면서 서유본 집안은 한꺼번에 몰락하였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던 동생 서유구도 향리에 유배되었다. 이 때 빙허각의 나이 47세였다.

빙허각과 서유본은 집안이 몰락하고 가산마저 기울게 되자 거처를 삼호 행정으로 옮겼다. 이 때 부터 빙허각은 손수 생계를 꾸려나갔다. 시동생 서유구도 옥사에 연루되어 1823년(순조 23)까지 벼슬에 나가지 못한 채 무려 6번이나 주거지를 옮기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도움을 줄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게를 직접 경영하던 1809년(나이 51세)에 완성한 『규합총서』는 이러한 생활이나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서유본은 평상시 문 밖 출입을 별로 하지 않고 독서에만 몰두하는 편이었다. 거처를 삼호(三湖) 행정(杏亭)으로 옮기고 난 이후로는 오로지 독서와 저술로만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빙허각과는 경서를 논하고 시를 주고받으며 지우(知友)같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다. 빙허각은 이 시절에 대해 『규합총서』 서문에서 “내가 삼호 행정에 집을 정하고 집안일 하는 틈틈이 남편이 있는 사랑으로 나가 옛 글이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과 산야에 묻힌 모든 글을 구해보고 오직 문건을 넓히고 적적함을 위로하였다.”¹³⁾고 적고 있다. 서유본의 재야 생활은 본인에게 불행이었지만 빙허각에게는 학문을 넓힐 수 있는 튼튼한 받침목이 되었다. 『규합총서』라는 책이름도 남편이 붙여주었다.

서유본이 지은 시 가운데 새로 담근 백화주(百花酒)가 익자 지은 시가 있다. 거기에 “아내가 해마다 누에치고 길쌈하며 온갖 꽃을 따다가 술을 빚어서 준다”¹⁴⁾는 내용이 있어 부부애가 깊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백화주는 빙허각이 개발한 술로서 『규합총서』에 담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빙허각은 슬하에 모두 4남 7녀를 두었는데 8명은 일찍 죽고 아들 1명과 딸 2명만 살아남았다.

3) 빙허각의 저술

서유구가 쓴 묘지명에 의하면 빙허각의 저술로는 『빙허각시집』(1권), 『규합총서』(8권), 『청규박물지』(5권)가 있다. 1939년 황해도 장단군 진서(津西)에 있는 서씨 후손의 집에서 발굴한 전서(全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전해준다.

당시 발굴한 빙허각의 전서는 총 3부 11책이며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다. 발견 당시 빙허각의 전서 내용과 생애가 간략하게나마 1939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졌다.¹⁵⁾ 그 때 소개된 ‘빙허각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규합총서(閨閣叢書) : 주식(酒食), 봉임(縫紉), 산업(産業), 의복(醫卜)
- 청규박물지(淸閨博物志) : 천문, 지리, 세시(歲時), 초목(草木)·금수(禽獸), 충어(蟲魚)·복식, 음식
- 빙허각고략(憑虛閣稿略) : 자작시(自作詩), 한문대역(漢文對譯), 태교신기발(胎教新記跋), 부문헌공묘표(父文獻公墓表)

동아일보의 내용과 서유구가 쓴 묘지명을 비교해보면 『빙허각고략』과 『빙허각시집』만 다르고 『규합총서』와 『청규박물지』는 일치한다. 『청규박물지』는 그 서문에 “내 이미 규합총서 5편을 이루

13) 이빙허각 저, 정양완 역주, 『규합총서』, 보진재, 1975, 1쪽.

14) 서유본, 『좌소산인문집(左蘇山人文集)』 권1, 「백화주신숙 희이부장구(百花酒新熟 喜而賦長句)」.

15) 『동아일보』 1939년 1월 31일자.

매 산해경 등을 읽고 다시 청구박물지를 지으니...”¹⁶⁾라고 하여 『규합총서』를 쓴 이후의 저술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빙허각고략』은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빙허각시집』과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빙허각이 남긴 저술은 1939년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던 셈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규합총서』와 『청규박물지』만 전한다. 참고로 『청규박물지』는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에 일본 도서관에서 발굴되었다.(『조선일보』 2004년 2월 3일)

16) 『동아일보』 1939년 1월 31일자에 실린 『청규박물지』 序文 사진 참조.

3. 『규합총서』와 살림 문화

1) 『규합총서』의 구성

『규합총서(閨閣叢書)』은 빙허각 이씨의 저서다.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를 의미하므로 『규합총서』를 요즘말로 바꾸면 ‘가정학총서’가 된다.

〈표2〉 『규합총서』의 구성과 내용

권수	제목	주제	내용
권1	주사의 (酒食議)	식(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과 음식에 대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예절 - 술과 술잔 이름, 주론(酒論), 술 마시는 이야기 - 약주의 종류와 품평 ○ 술과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초(醋) 담그기, 술 빚기 - 김치담그기, 생선·고기·튀 등을 이용한 반찬만들기 - 차(茶)에 대한 품평 ○ 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떡, 면, 과자 만들기 - 과일과 채소 오래 보관하기 - 기름짜기
권2	봉임측 (縫紉則)	의(衣) 기타 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 길쌈, 수선, 염색, 다듬이법, 빨래 ○ 여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녀전, 몸단장, 화장 ○ 기타 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방, 그릇, 향 만드는 법, 불 밝히는 법 - 돈 이름과 돈의 역사, 방구들 놓는 법 - 누에치기, 뽕 기르기 - 서양 문물의 소개
권3	산가락 (山家樂)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 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 갈기 좋은 날, 과일 따는 법, 꽃재배, 꽃품평 - 세시기, 날씨 점치기, 가축 기르기, 양봉
권4	청낭결 (靑囊訣)	건강/의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교와 육아, 구급처방, 경험방 - 여러 가지 물린 데 낫게 하는 법, 벌레 없애기 ○ 우리나라 팔도 물산 ○ 잡저(雜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세지는 법, 잠 안오는 법, 얼굴을 트지 않게 하는 법 등등
권5	술수략 (術數略)	민간풍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선택 ○ 길흉·부적·귀신 쫓는법 ○ 재난방지법

내용은 총서라는 제목에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술음식만들기[酒食議], 옷만들기·물들이기·길쌈하기·수놓기·누에치기[縫紉則], 밭일·꽃심기·가축기르기[山家樂], 태교·육아법·응급처치법[靑囊訣], 방향선택·길흉·부적·귀신쫓는법·재난방지법[術數略] 등 다양한 생활 경제를 담고 있다.

2) 『규합총서』의 연구 방법

『규합총서』에는 조선후기 새로운 학풍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책에서 인용한 한국과 중국의 서적만 80여 종에 달한다. “인용한 책이름을 각각 작은 글씨로 모든 조항아래 나타내고 내 소견이 있으면 신증(新增)이라 썼다.”고 했듯이 인용한 출처를 밝히는 연구 방법은 실학자들의 전형적인 학문 태도로서 청대 고증학의 영향이었다.

『규합총서』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합총서』에 영향을 미쳤던 저서들에 주목해야 한다. 『규합총서』는 『본초강목』을 비롯한 각종 중국책에서 부터 『지봉유설』·『산림경제』·『성호사설』·『동의보감』 등 우리나라 책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합총서』의 체제나 내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책은 『산림경제』(1715년경)라고 여겨진다. 『산림경제』는 농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일종의 종합 생활경제서이다. 『산림경제』는 이후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1766년)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일명 『임원십육지』, 1827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빙허각의 시할아버지 서명응이 편찬한 『고사신서』(1771년)와 시아버지 서호수의 『해동농서』(1799년)는 『산림경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으니 이 책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규합총서』의 목차를 『산림경제』 목차와 비교해보면 『규합총서』의 내용과 체제가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규합총서』가 조선후기 농가경제서의 원조인 『산림경제』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규합총서』가 17세기 이후 백과전서파로 불리면서 경제치용을 추구한 학풍인 실학의 영향을 받고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규합총서』가 『산림경제』를 밑바탕으로 저술된 『증보산림경제』나 『임원십육지』 등의 실학서와 학문 경향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빙허각은 『규합총서』를 한글로 기록하였다. 빙허각은 『규합총서』의 서문에서 “무릇 각각 조항을 널리 적기에 힘써 밝고 자세하고 분명케 하고자 하였으므로 한 번 책을 열면 가히 알아보아 행하게 하였다.……마침내 이로써 서문을 삼아 집안의 여자들에게 준다.”고 하여 여자들에게 널리 읽혀 유용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

요컨대, 빙허각은 경제치용의 지식을 소화해 여성 입장에서 한글로 씌으로써 남성에 의해 한문으로 작성된 방대한 지식을 쉬운 우리 글로 여성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지적 욕구가 증대해나가는 시기에 여성에게 필요한 지식을 수준 높게 전달했다고 평할 수 있다.

4. 『규합총서』에 담긴 살림/살이

1) 주사의

「주사의」는 술과 음식에 대해 논의한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은 술 담그기, 장 담기, 초(醋) 빗기, 차(茶)에 대한 품평, 김치 담그기, 생선·고기·팽 등을 이용해 반찬 만들기, 온갖 떡과 과자 만들기, 여러 과일과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기름 짜는 법 등이 담겨있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단순히 음식 만들고 술 빚는 내용이 아니다. 빙허각은 사람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책임이 여자의 임무라고 여겼다. 과학성과 미각, 몸의 보호 등 우리가 지금 ‘웰빙’이라 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온갖 문헌과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담아냈다.

빙허각은 이 장 앞머리에 <사대부가 음식 먹을 때 생각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밝혀 놓았다. 첫째,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헤아리고, 백성 고향을 먹는다고 생각할 것, 둘째, 아버지와 임금을 섬기고 나중에 입신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음식맛만 따지지 말 것, 셋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만 탐내지 말고 배불리 먹지 말 것, 넷째,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을 것, 다섯째, 공덕을 이루어 놓은 후에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반찬 만들기 중에는 김치담그기가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 만큼 다양한 김치가 등장한다. 특히 용인오이지는 우리나라에서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생선·고기·팽 등을 이용한 조리법은 오늘날 민간 처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또 여성에게 좋은 보혈(補血) 식품으로 가물치를 소개하였다. 계절에 나는 과일과 야채 보관법도 눈길을 끈다. 그리고 장 담그는 법, 장 담그기 좋은 날과 나쁜 날, 장 담그는 물, 초 빚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소개했다.

「주사의」에는 술에 대한 내용도 많다. 눈길을 끄는 내용이 술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술이 깨고 취하지 않는 법, 술 끊는 비법, 술이 깨고 병 안 들게 하는 약방문 등이 있다. 빙허각은 술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나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여성들이 몸에 좋은 술을 빚자는 의도에서 각종 약주 담그는 법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2) 봉입축

「봉입축」은 바느질과 길쌈에 관한 내용이다. 옷 만들기, 옷 재단하기 좋은 날과 나쁜 날, 좋은 솜 마련하기, 길쌈, 수놓기와 그림그리기 염색, 옷 간수, 다듬이 법, 빨래하는 법, 그릇, 향 만들기, 누에치기, 뽕 기르기, 온돌 놓기 등 여성의 일상 노동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봉입축」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문방, 돈의 역사, 외국의 신기한 물건, 열녀전, 머리와 얼굴 꾸미기 등 빙허각 이씨의 과감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색다른 항목도 들어있다. 즉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이어지는 주체 의식의 확대 현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기기목록(器機目錄)>은 온도계, 축음기, 선풍기, 돋보기, 천리경, 현미경, 음악 소리가 나지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저절로 연주가 되는 자동희(自動戲:전축) 등 외국의 여러 생소한 물건들을

소개하였다. 이는 빙허각이 가진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과 개방적 태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여러가지 물들이는 법>은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천연 염색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다.

<전보(錢譜)>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경제나 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던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돈 이름 7개를 거론하면서 “돈이 있으면 위태로운 것을 편안케 할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반면 돈이 없으면 귀한 사람도 천하게 되고 산 사람도 죽게 하니 이르고로 분쟁이 돈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원한이 돈 아니면 풀리지 못한다.”고 논평하였다.

3) 산가락

「산가락」은 시골살림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밭갈기, 수확법, 꽃 기르기, 가축 기르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밭 갈기 좋은날, 과일 따는 법, 꽃 기르기, 꽃 품평, 세시기, 시골에서 날씨 짐치기, 말·닭·개·고양이 기르기와 양봉 등이 들어있다. 여기에 실린 농업, 목축, 산업 등은 경제 활동과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서 대부분 남성들이 정리한 지식이었다. 여기에는 남편 서유본 집안의 학풍이 농학이나 박물학에 특장을 보인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장에는 인삼, 고구마, 담배, 무우, 순무, 갓, 배추, 상치, 아욱, 생강, 마늘, 파, 부추, 쪽 등의 야채, 오이, 수박, 참외, 동과, 박, 열박, 조롱박, 호박, 가지, 고추, 곰달래, 승검초, 맨드라미, 양귀비씨, 오미자, 구기자, 적로채, 밤, 대추, 배, 홍시, 은행, 살구, 능금, 복숭아, 오얏, 사과, 앵두, 포도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 심는 법과 수확법을 실어놓았다.

세시기도 덧붙여 놓아 농사와 명절, 절기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하였다. 설, 보름날, 한식, 삼월삼짇날, 청명, 사월과일, 오월단오, 유두(6.15), 삼복날, 칠월칠석, 칠월보름(백중), 팔월한가위, 구월구일, 시월초하루, 동지, 십이월팔일(납일), 중화절(2.1) 등 명일(名日)의 유래와 풍습을 밝혀놓았다. 이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까지 명절로 이어져 오는 날도 있고, 이름만 남아있거나 우리에게 생소한 명일도 눈에 띈다.

또 개나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 대한 관심도 많다. 「주사의」에서 개고기 조리법을 설명한 빙허각은 이 장에서는 “비록 짐승이나 능히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집에서 기른 것은 잡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4) 청낭결

「청낭결」은 병 다스리기로써, 태교, 육아, 구급방, 약물금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태교와 출산, 구급처치, 여러 가지 물린 데 낫게 하는 법, 벌레 없애는 법, 우리나라 팔도 물산, 각종 경험방 등이 있다.

얼핏 태교나 육아법 등이 『규합총서』에만 있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산림경제』에도 육아와 부인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 이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죽거나, 어린아이가 갖은 병치레로 죽는 일이 허다했기에 출산, 육아, 구급방 등은 한 집안에서 대를 잘 잇기 위해 남성에게 중요한 학문적 탐구 대상이자 상식이었다.

빙허각의 외숙모는 『태교신기』를 지은 이사주당이다. 그래서 『규합총서』에는 요긴한 태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경험방에는 각종 처방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려면 “복숭아, 살구꽃을 따 그늘에 말려 물에 섞어 조금씩 7일 동안 세 번 먹으면 아기 있어 아들 낳는다 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밖에도 생활상식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오리알 삶을 때에 꿀뿌리를 넣으면 빛이 붉어진다, 칼에 기름을 바르면 녹슬지 않는다, 연근과 줄기를 쥐구멍에 쬐으면 쥐가 없다, 손톱밑 때 낀 데 흰 매화와 조각 달인 물에 씻으면 없어진다, 기름 묻은 손은 소금으로 씻으면 낫는다 등등이다. 얼굴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인 면지법도 주목된다.

또 주목되는 내용은 전국에 걸쳐 생산되는 다양한 물산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빙허각 이씨가 밝힌 팔도의 물산은 바로 조선 산업의 현주소였다. 빙허각 이씨의 관심은 집안일이나 농업 경영에서 끝나지 않고 당시 전국에서 유통되는 물건이나 물산에까지 미쳐 있었다.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회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바탕 위에 가능한 일이었다.

5) 술수략

「술수략」은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방책이라는 의미로, 집의 방향에 의해 길하고 흉한 것을 가리는 법, 집을 안전하게 하는 법, 돌림병을 물리치는 법, 입택(入宅)이나 이사부엌·우물·뒷간·벌목 등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날을 택하는 법, 부적, 길흉을 점치는 법 등을 담았다.

빙허각은 「술수략」에 대해 서문에서 “집을 진압하고 있는 곳을 정히 하는 법과 음양구기하는 방법을 달아 부적과 귀신 쫓는 일체의 속방에 미쳤으니, 이로써 뜻밖의 환난을 막고 무당, 박수 따위에게 빠짐을 멀리할 것이다.”고 하였다.

빙허각은 조선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나 민간에서 처방해온 방법을 여기서 수집, 정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로부터 오는 공연한 기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천재지변이나 각종 돌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천명을 거슬러서, 또는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 쉽기에 무당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빙허각은 생활 속에서 환난을 미리 예방한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다. 여기에 들어있는 돌림병을 물리치는 법도 그 중 하나이다. 요즘도 옛 어른들은 못 하나 박을 때에도 함부로 박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큰 재난으로부터 가문을, 집을, 식구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5. 맺음말 - ‘살림문화’의 가치와 전망

이빙허각은 '여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살림의 영역을 지식화하여 한글이라는 문자를 선택해 여성을 위한 글쓰기를 하였다. 진정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여성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규

합총서』가 빙허각이 살아있을 때부터 필사되고, 『간본 규합총서』(1869)나 『부인필지(夫人必知)』(1915년) 등으로 간행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고대 그리스였다고 한다. 영어의 economy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oekonomia는 ‘가정’을 뜻하는 oikos와 질서나 법률을 뜻하는 nomos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한다.¹⁷⁾ 곧 경제의 기원은 가정 관리였다는 뜻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소개했듯이 노동 세계와 가정생활의 극단적인 분리를 전제로 하는 현대의 가정은 19세기의 창조물이다. 가내수공업의 쇠락과 급여 노동의 발달은 가족을 점차 비인격적인 시장 체제에 지배당하는 공적 세계로부터 떨어진 사적인 휴식처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단순히 노동 공간으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외부 영향에서 가정을 분리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분리된 가정 안에 여성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노동세계와 가정생활의 결합이 여성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사를 연구한 연구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은 가내직공 체계 안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무보수로 고용되어 일하는 일꾼 역할을 해야 했다. 가내직공의 아내는 직공이나 방적공으로 제공하는 노동에 그치지 않고 자녀도 낳고 길러야 했다. 여성들은 재생산과 가사노동에다 남편의 일까지 도와야 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세계와 가정생활의 분리는 여성을 과도한 노동으로 벗어나게 해 준 셈이다. 그 대신에 가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 있어야 했다.

여성주의 살림/살이는 몰가치적으로 가정성을 예찬하지 않는다. 과거에 여성이 집안에만 있었다는 지난 시대의 한결같은 이미지에 도전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차 살림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계급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교육이 중시되면서 가정은 계급의 재생산을 위한 장(場)으로 변화하고 있다.

살림문화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과 경험이 통합적으로 투여되는 장이다. 화폐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나 작은 단위의 자율적 경제 공동체이다. 과도한 화폐경제의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살림이 되살아나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살림살이에는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투여해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 요리, 의복, 의사, 간호사, 건축가, 천문가, 기상예측관 등 만능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오늘날 이 부분은 핵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여성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여성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는 살림/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옛 방식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복고주의와 상당히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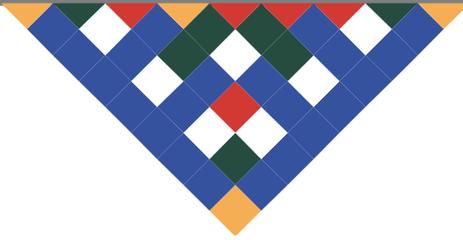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남성도 살림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남성과 지역이 함께 살림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살림공동체로서의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빙허각이 『규합총서』에서 보여준 살림문화 정신을 전통으로 계승하는 길이며, 가정이 공동체의 근간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17) 홍기빈, 앞의 책, 59-60쪽.



살림의 전문가들 - 바느질과 자수

발표 : 신지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살림의 전문가들 - 바느질과 자수

신 지 영(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I. 들어가며 : ‘살림’을 묻다

이 글은 여성의 ‘살림’을 다시 평가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집에 가서 아이나 보라’라는 말이 있다. 듣는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여성의 일, ‘살림’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이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고 보면 집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 무능하고 할 일없는 사람이 하는 하잘 것 없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육아 뿐 아니라 여자의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집안 일’, ‘살림’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평가 절하되어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프레이즈는 70년대 여성주의의 모토였다. 반세기 전의 여성주의의 슬로건을 21세기 한국사회는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모토에서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은 아무런 정치적인 힘의 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⁸⁾ 모든 부조리한 힘의 관계가 판을 치는 공적사회와 달리 집이라는 개인적, 사적 영역은 순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낙원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여성의 거의 모든 문제는 이 사적인 영역,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공적영역과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개인적 영역’은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그렇듯 노동과 폭력 억압 등 사람살이 꼴을 지니게 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는다.¹⁹⁾ 더 나아가 노력과 기여를 해도 보상도 인정도 없다. 그런데 여성의 살림은 전적으로 가정,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성의 ‘살림’이 이래서 문제이다.

성별에 의한 공사 이분법은 어느 사회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통 유교 담론에 따른 내외법이 있다. 21세기에 이러한 전통 내외법은 깨어졌다고 하지만 실상 아직도 여성은 이러한 한국판 공사담론, 내외법의 문화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직장 여성이라도

18) Carole Pateman,(1983) “Feminist Critique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155-160, Inderpal Grewal and Caren Kaplan, ed., Mc Graw Hill Higher Education, Boston 2006, pp.155-160

19)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 폭력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도 개인의 문제로 공적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2013년 울산에서 일어났던 계모의 아동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가족 학대 등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늦게 발견 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일에만 전념하는 남자와 달리 여성은 직장일 이외에서 전통적으로 담당하던 가사 노동,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 살림일은 여성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꺼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과 일 사이에 허덕이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56.6%로 OECD 평균 78.4%를 훨씬 못 미치는 꼴찌이다.²⁰⁾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이라면 무조건 여성일이라는 공사분리 문화적 규범 때문에 출산률도 현재 1.22%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70년대 여성주의의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라는 모토를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간 슬로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래서 지금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한다. 여성의 일, 살림 일을 ‘가정의 일, 사적인 일, 개인적 일’로 치부하고 여전히 아무 보상도 평가도 하지 않는 영역에 밀어두기 때문이다.²¹⁾ 19세기 이래 여성주의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여성의 일, 곧 ‘살림’을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으로 명명하는 가부장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폭력과 싸움이었다. 육아나 교육 같은 중요한 일도 일단 ‘집안 일’로 불리면 ‘집에 가서 아이나 보는 일’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집안을 돌보는 ‘살림’에는 커리어나 임금 보상도 없다. 무엇이든지 ‘집안일, 사적인 일’로 불리면 그때부터 사회적 공식적 보상 체계가 없으니 이러한 문화규범은 폭력과 진배없다.

공식적인 가치 평가는 없어도 우리 모두 체험으로 여자들의 일, 어머니들의 살림이 어떤 것이라 것을 안다. 살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다. 생명을 살리고 나와 가족을 키우고 집안을 살리는 일이었다. 살림의 힘으로 우리가 커왔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상 공사담론을 견어내면 살림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살림은 전문적이다. 보통 의식주로 나뉘는 살림은 삶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다. 살림은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식구들이 쉴 수 있는 노동 재생산 공간 곧 집을 만든다. 이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양육시키는 것도, 노년층을 돌보는 것도 여성들이 책임져야 할 살림의 중요한 몫이다. 여자들의 살림은 의식주, 육아, 교육, 노인 가정 경제 등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한다. 이 중 어느 분야 하나 경험과 지식, 숙련,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평가 되지 않을 뿐이고 커리어로도 임금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뿐이다.

II. 빙허가의 딸들 : 바느질의 명인들

살림의 총서를 쓴 빙허각 이씨를 비롯하여 음식, 바느질 등 살림 각 부분에서 여성들은 기량을 보인다. 김현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자기 작가이다. 전통 자수를 복원하여 현대적 미감으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은 정교함에서나 미적 성취에서나 일급으로 1994년 한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 ‘대한민국 자수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가 자수를 하게 된 것은 그러나 여성으로

20) 파이낸셜 뉴스 2014는 2월 4일

21) 공사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사회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제외된 개인이 알아서 하는 사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가 여성에 대한 억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 사적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이 이분 담론 자체에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본래 손으로 하는 일에 능했던 그는 어머니가 수를 배우는 바람에 전문인의 눈에 들게 되었다. 바늘과 실은 이 여성 작가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이다.

살림, 바느질은 한국 근대 미술이 깊이 생각해야 할 여성 문제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한국 미술사에서 여성 미술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조선시대에 시·서·화에 일가를 이뤘던 신사임당을 꼽고 나면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가 고작 우리가 기억하는 근대기의 여성 미술가이다.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것과 달리 당시의 여성 예술 인구는 이보다 훨씬 지평이 넓다. 1920년에서 40년까지 나혜석, 천경자, 박래현이 다녔던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다녔던 한국 여성이 1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²²⁾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미술가는 모두 ‘미술’로 분류되는 ‘회화’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나혜석은 양화, 천경자, 박래현은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동경 여자 미술전문대학 ‘자수과’로 유학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 현대 자수공예의 산 증인이라고 할 만한 박을복이 1935년 동경 미전 자수과로 유학하였다. 그전에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1915년 장선복, 1930년 전명자, 김연임, 1932년 김소판례, 박여옥, 심재순, 1934년 최복녀가 유학하였고 같은 해 1935년 조정호, 나사균, 박순경, 김태숙, 석춘봉이 수학했으며, 1936년에는 박유분, 이장봉 윤봉숙, 1937년 원예례 등이 동경미전 자수과에서 공부하였다.²³⁾ 이 여성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미술’이 아니라 여성적인 ‘자수’를 했기 때문이다. 하잖은 ‘살림’ 과목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 살림, 부덕의 상징이었던 자수는 새로운 세상과 신교육에 열망이 가득한 여성들이 그나마 사회의 저항을 이기고 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과목이었다. 박을복은 1933년 호수돈여고를 졸업하고 1937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사범과 자수부를 졸업하였다. 호수돈고등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38년 조선미전 입선, 1961년, 1962년, 1963년 국전 입선, 1962부터 97년까지 개인전 총 6회를 가진 대표적인 자수가이지만 자수라는 여성적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 미술가’로 알려지지 않았다. ‘살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상수는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자수 일인자이다. ‘자수패블’로 제 6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198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80호로 지정되었다. 올해 80인 그는 20살 때부터 60평생을 자수에 바쳐온 셈인데 그가 본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선 것은 한국 전쟁 막바지인 1953년, 동경여미전 출신의 자수계의 대모 조정호 선생을 만나면서이다. 그 후 그는 전통 자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옛 자수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수집도 했다.²⁴⁾ 1963년 수립원 자수 연구소를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60여 가지 한국 자수기법을 복원한 책도 출간하였다. 1971년 기본 자수, 1974년 이조자수, 1979년 흥배, 1983년 불교자수를 출간하면서 한국 자수를 정립하였다.

스무 살 때부터 육십 평생을 자수에 바쳐 대한민국 자수명장에 오른 한상수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러나 의외의 답을 한다. 수공과 품이 많이 들기로 자수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22) 김철호, “구술사를 통해서 본 20세기 한국의 자수 미술사들”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2011년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센터, 14쪽

23) 김순애(1975), “근대 한국 자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0쪽

24) 아시아경제 2013년 9월 6일, 농민신문 2010년 6월 16일

수를 놓을 때는 ‘신이 나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데’ 정작 힘든 일은 자수를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소일거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수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식 서양식 중국식 자수에 밀리던 한국 자수를 복원하기 위해 수기법이 다른 한국 자수법을 복원하여 책으로 정리하였다. 60여 가지 한국 수를 정리 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사라져 가던 ‘안주수’ 기법을 전수받았다.²⁵⁾

수 뿐 아니라 자수품들, 왕가의 자수품이나 관가나 민간에서 쓰던 복식류, 쓰게 같은 여성 장신구나 신발, 혼인 제사 민속품 등 자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집하였다. 자수는 의복, 장신구를 넘어서는데 주거 장식용 병풍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불사에도 이용되었다. 그래서 한상수의 작품은 고고학적인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분에 따라 용, 기린, 사자, 공작, 해태 등이 각 흥배보자기, 한복, 노리개 등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 추적하였다. 삼국시대 천수국수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함께 20년을 소요 했으며 조선시대 순조임금의 딸 복온공주(1818-1832)가 혼인할 때 입었던 대례복을 복원하였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활옷은 길복을 의미하는 각종 화훼, 과일 이 수놓아져있고 보문과 색실 수무늬에 테두리가 금실로 둘러져 있어 궁궐의 공예양식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자수 대례복은 공주의 6대손 김귀년 씨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자 대여섯 명과 다섯 달에 걸쳐서 복원한 것이다.²⁶⁾ 한상수는 자수를 ‘바늘과 실로 그리는 그림, 미술과 공예가 혼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평한다.²⁷⁾ 이렇게 노력이 들고 공부가 필요한 자수는 자수가 “마치 규방여성의 인내와 성품을 위한 가사”쯤 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고 섭섭함을 털어놓는다.

김현희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토로한다. ‘보자기’를 한다고 하면 백이면 백 ‘도자기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²⁸⁾ 그만큼 보자기 같은 수보자기에는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조선 궁중 자수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현희는 1994년 한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이어 97년에 문화재청에서 ‘자수명장’으로 인정받았다. 김현희의 하루는 구도의 길을 가듯 수에 집중되어 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느질 하는 그는 저녁 먹은 뒤 두세 시간 잠들었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바느질을 할 정도로 수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지녔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바느질을 잘하면 샅바느질로 연결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스승은 ‘네 바느질은 샅 받고 팔게 아니다. 작품을 하라’고 일깨워주었다. 먹고 살려고 꽃꽂이도 해보고 꽃집에서 쓰는 리본을 맡아주는 부업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밖에 볼일 있어 나가면 주머니에 리본 천을 잔뜩 넣고 가 걸어가면서도 리본을 접을 지라도 자수로 돈 벌 생각을 안했다고 할 만큼 예술로서의 자수에 자부심이 강하다.²⁹⁾

그는 기본적으로 조선 궁중자수 도안을 사용한다. 수보의 문양이 해학적이고 아름다워 옷과 그릇에 디자인해도 손색없다고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고 순박하면서 해학적인 수보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도안을 남겨준 선조에게 감사한다고 한다. 그는 이 수보에 40년의 예술가적인 열정을 지켜왔다.

25) 평안남도 안주는 예부터 명주가 유명하고 자수를 배우는 남자들이 양성돼 있었던 것이다.

26) 한상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 hansangsoo.com](http://www.hansangsoo.com), 아시아 경제 2013년 9월 6일

27) 농민신문 2010년 6월 16일

28) 메종, 2010년 2월

29) 한국일보, 2004년 4월 20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림을 내 보자기에 다 담으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 어찌 설 수 있겠어요.. 난 이제 전시를 해도 내 작품을 안 팔아요, 내 자료로 모아놔야지....³⁰⁾

그가 하는 보자기 작업도 예술이자 고고학에 버금가는데, 보자기는 사용계층, 제작 방법, 구조, 문양의 유무, 종류, 용도 색상 재료 등을 기준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것은 궁보, 민간에서 상용하는 것은 민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던 특수 의식용 보가 있고 제작 방법에 따라 수보, 식지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건을 포장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상보 이불보 옷보 등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쓰였고 복을 비는 종교적 주술적 의미도 있다. 자수와 천이 어우러진 그의 보자기 작업은 또 하나의 고고학이며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 무형문화재 13호 김계순도 마찬가지이다. 1923년 함경남도 4남 1녀 외동딸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숙명여대 기예과를 졸업하였고 미술에 대한 꿈으로 중국 대련 미술학교에 유학하였다. 1953년 국방부에 정훈 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기관의 요청으로 자수 도안과 수를 맡을 기회가 생겼다. 생각지도 않게 맡은 자수품이 완성되자 상대방에서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부터 본격적인 자수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김계순은 원래 회화적 소질이 풍부해 밑그림도 복사를 하기보다 직접 붓으로 천에 그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계순의 수는 실을 염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숨겨진 색을 자연에서 찾는 자연염색을 한다. 전통 자수를 현대화하여 현대 미술과 마찬가지로 추상으로 수작업을 할 뿐 아니라 실험적으로 실을 대신하여 머리카락으로 초상화 자수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고학에 버금갈 만큼 지적이고 현대 미술 못 지 않는 창의성이 번뜩이며 미적으로도 일급인 자수 작업은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들어지고 나면 규방 공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 수보는 일급의 미적 성취를 보여도 고가의 현대 미술 작품 같은 인식이 없다. 김현희 말대로 ‘보자기를 한다.’면 ‘도자기나’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실상 자수를 질적으로 보면 ‘예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대 미술은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다. 캔버스를 칼로 찢기도 하고 물감을 통째로 쏟아 붓거나 던지는 것도 모자라, 캔버스에 담배꽂초나 오줌을 뿌리기도 한다.³¹⁾ 쓰레기를 주어서 작품을 하고 폐차를 기계로 우그러 뜨려 조각품을 만든다. 실상 자수를 현대 미술처럼 보이게 하는 일은 아주 쉽다. 한상수는 자수 현대화에 따라 추상화에 영향을 받은 자수도 작업한다. 한상수도 김계순도 자신들이 추상 자수를 했더니 미술 하는 화가들이 놀란다고 입을 모은다. ‘내가 추상화로 수를 냈더니 깜짝 놀라고 화가들이 수도 이런 것을 하나고 해요’라고 말한다. 현대 미술처럼 추상 자수를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과 바늘이 들어가는 자수는 아무리 해도 ‘집에서 여자들이 인고로 하는 규방예술’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식구들 옷과 이불 같은 것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 조각을 모아두었다 수를 놓았던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집에서 여자들이 하는 ‘살림’이지 ‘미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작 해보아야 ‘공예’이지 ‘미술’은 아니라는 것이

30) 메종(Maison), 2010 년 2월

31) 대표적인 예가 앤디 워홀이다.

다. 한상수, 김현희 같은 사람들도 ‘장인’, ‘명장’으로 불리지 ‘예술가(artist)’가 되지 않는다.

III. 공적인정과 살림 : 실과 바늘의 미술

1957년 이화여대 자수과를 나와 유럽에 유학, 벨기에의 루뱅 시립 아카데미 장식미술과와 라 캉브르 국립시각예술학교 연조각과(軟彫刻科)에서 수학한 차영순은 젊은 예술인답게 실과 바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는 자수 공예와 현대미술을 잇는 교두보이다. 2004년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은 섬유를 사용하였지만 섬유와 실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회색 바탕에 노란 천이 놓여진 그의 작품은 몬드리안 같은 기하 추상을 연상시킨다. 2011년의 전시에서는 닥종이를 꼬아 실처럼 씨실과 날실로 만들었다. 일렬로 늘어선 실이 튀어나와 부조 같은 느낌이다. 차영순은 실과 바늘 섬유가 단순히 살림의 도구나 공예가 아니라 현대 미술의 완벽한 미디어임을 보여준다.³²⁾

실상 공예는 여성 미술에서의 핵심적인 논쟁이다. 공사규범에 저촉되어 있는 여성들의 미적 작업은 대부분 집안에서 식구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공예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³³⁾ 자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때문에 70년대 여성주의 운동이 거세지자 서구에서는 퀼트 논쟁이 촉발되었다. 1960, 70년대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하던 퀼트가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되었는데 현재 ‘퀼트 아트(quilt art)’ 혹은 ‘아트 퀼팅(art quilting)’은 공예라기보다 미술품(fine arts)으로 분류된다.

1971년 휘트니 뮤지엄의 전시, ‘미국 퀼트의 추상 디자인(Abstract Design in America Quilts)’은 퀼트가 미술품으로 인정받는 이정표적 전시였다. 이 전시에서 퀼트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하얀 벽에 한 작품씩 독립적으로 전시되었다. 퀼트는 보통 시장의 매대에 아무렇게 쌓여 있다가 보통인테 갤러리의 흰 벽에 하나씩 독립적으로 전시되자 미술품과 진배없었다. 마침 퀼트는 당시 유행하던 넓은 색면과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던 색면 추상, 마크 로드코, 바넷 뉴먼의 작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휘트니 전시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였고 이 후에도 198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터 시작한 국제 순회전인 ‘퀼트전 (The Art Quilt)’ 1976 뉴욕 컨템포러리 공예 미술관에 열린 ‘새로운 미국 퀼트(The New American Quilt)’ 등에 의해 여성의 실과 바늘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32) 미술사에서 공예와 미술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 Griselda Pollock 1983, Rozsika Parker 같은 미술사가에서였다. 이들은 서구에서의 자수와 그림의 변화하는 위상을 역사적으로 리서치 하면서 순수미술의 위상을 탈신비화하였다.

33) Kenneth R. Trapp, [A Theory of Craft :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13, pp.71-73, pp. 215-217. 실상 공예(craft)와 동떨어져 '미술(fine arts)'이라는 장르가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공예(craft)'라는 말은 원래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의미상 '미술(art)'과 동의어였다. 라틴어 'ars'는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미술(art)'의 어원이 되었는데 로마시대 이 말은 '공예(craf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두 낱말 모두 '기술'을 의미하였다. 실지로 미술과 공예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근자의 일이다. 공예와 독립된 미술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이지만 오늘날에 가까운 의미의 미술이라는 분야가 생긴 것은 18세기였다. 같은 세기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미학도 이때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단어 '미술(fine arts)'이 생겨난 것은 그보다 늦어 18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공예와 미술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는 '유용성'이다. 현대 미학을 확립시킨 칸트의 영향으로 칸트 이후 미는 '무목적성' '무용성'과 결합되었고 칸트 미학이 기반이 되어 '무용성'이라는 것이 현대미술과 그 이외 것 곧 '공예'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아무리 그 미적 특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쓸 용도로 제작되었다면 이는 '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침 1980년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밴드 퀼트(The guilts of Gee’ s Bend)’는 기성 현대 미술에 대한 의문과 여성 예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확장 하였다. ‘지 밴드는 퀼트’는 알라 바마주의 지 밴드 (Gee Bend)라는 곳에 거주하는 흑인여성들이 집단으로 만든 퀼트이다. 19세기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여성 노예들은 잠이 나면 모여서 고된 나날 속에서 짜투리 천으로 퀼트를 만들었다. 험한 시절 아이들을 덮어주고 식구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대담한 아프리카 미감을 보이고 있는 그들의 퀼트는 독특한 색채 배합과 패턴 양식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를 지탱 해왔던 힘과 그 예술적 아름다움 때문에 지밴드 퀼트는 1969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83년 브링검 도서관에서 구술사와 함께한 전시를 필두로 2002년 휴스턴 미술관에서 대대적으로 미술적인 조명이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고상한 미술작품만을 주로 취급하던 휴스턴 미술관 관장, 피터 마리조(Peter Marizo)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미술관이 이러한 작품을 전시 하면서 더 나은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말로 여성 미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곧 지 밴드 퀼트는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의 휘트니 뮤지엄에서 전시되고 더불어 ‘미국이 이때까지 생산했던 예술작품 중 가장 기적적인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위상을 달리 하였다.

지밴드의 퀼트는 그 후에도 전국적으로 투어 전시를 하였는데 스미소니언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 미국 대표적인 미술관을 순회하였다.³⁴⁾ 여성들이 공동으로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바느질 작업은 독립성과 일회성, 개인의 영감, 천재를 주장하고 또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곧 무용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술의 정의를 새삼 반문하게 한다. 험한 세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가족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여자들이 묵묵히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천 조각들은 왜 미술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현대 미술이란 명예만 탐하는 공적영역 남자들의 미적유희를 부르는 이름 아닌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보듬어 안은 이 여자들의 한땀 한땀의 바느질에 진정한 예술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 아닌가?³⁵⁾ 현재 휴스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그래서 여성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퀼트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여성적’이라거나 ‘살림’으로 명명하여 하찮게 보는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인 시각이 빙허각 이찌나 여성 자수가 같은 위대한 여성을 오랜 망각의 무덤 속에 묻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History)를 ‘남자들의 이야기(his story)’라고 하는 이유이다.

34) <http://www.smithsonianmag.com>, <http://en.wikipedia.org/wiki/Boykin>

35) 여성의 바느질, 살림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미술의 분야에서도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독립성과 일회성, 개인의 영감, 천재를 주장하고 또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곧 무용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술의 정의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실용성, 돌봄을 기본으로 하는 여성의 살림은 배제하는 것이고 젠더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도판



박을복, [국화와 원앙], 1938년 비단 자수 60x128



국화(菊花)와 원앙(鸳鸯), 1938년, 60x128cm, 2폭



사슴, 1962년, 58x190cm, 4폭



정(靜), 1962년, 60x128cm, 6폭

1 국화(菊花)와 원앙(鸳鸯) Chrysanthemums and Mandarin Ducks

'조선미술전' 입선 작으로, 625 전쟁 중 휴디미에 묻혀 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본 모습에 기겁해 복원 했다. 원앙 한 쌍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대각선 구도로 위에 꽃과 한 쌍의 원앙이 배치되어 있는 작품이다. 왼쪽 공간은 시원하게 여백을 남기고 오른쪽 공간은 국화꽃으로 가득 채웠다. 기법은 무거운 말리프 감각이 느껴지게 실을 겹쳐 수를 놓았다.

2 사슴 Deers

이 작품은 신인들이 즐기고 애용했던 장생도(長生圖)의 여러 상징물 중 사슴을 주제로 수를 놓았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환고 있는 한 무리의 사슴을 표현한 작품이다.

3 정(靜) Tranquility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의 연꽃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양자수법인 아틀리케 기법을 써서 큰 면은 천으로 처리한 뒤 굵고 거칠게 실을 꼬아 대담하게 수를 놓은 것이 특징이다. 1961년 구미 각국의 미술계를 돌아본 직후라 한국자수의 현대적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박을복지수관, 전시팜플렛,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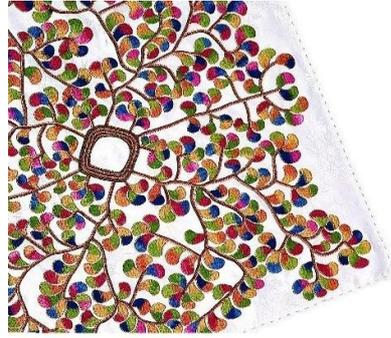
김계순



김계순, 2010년 인천무형문화재전시



그림 20 김현희 자수 수보자기 EmbroiderePojaki, 명주 silk 48x48



제5회 김현희 자수보자기연구회전
5th Exhibition of Kim Hyun Hee Embroidery & Bojagi Institute

2010. 7. 7(수) - 7. 12(월)
인사아트센터 4층

INSART CENTER

김현희 자수 보자기 전시회 포스터 2010



북촌 한상수 자수 박물관 내부, 가운데가 복원공주 활옷



차영순, 2013 [바람에 날리는 꽃씨들], 캔버스, 비단, 레이스, 자수



차영순 동일 작품



지 밴드 퀼트, 휴스턴 뮤지엄



퀼트 제작 중인 지밴드 여성들,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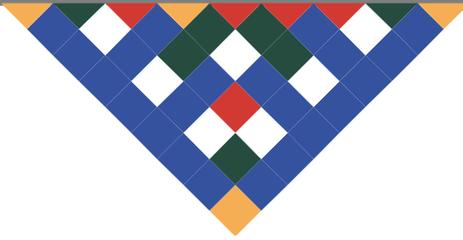
참고 문헌

- 김순애, “근대 한국 자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5
- 김철효, “구술사를 통해서 본 20세기 한국의 자수 미술사들”,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 자수],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센터, 2011
-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송자리, 2003
- 신지영, [꽃과 풍경, 문화연구로 본 한국 현대 여성 미술사], 미술사랑, 2008
- 신지영, “여성의 역사 쓰기: 자수 공예와 한국현대 미술사”,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센터, 2011
- 심철용, “동경여자미술학교와 한국 근대미술”, [월간미술], 2003년 4월호
- 정해은, “조선후기 여성실학자 빙허각 이씨”, [여성과 사회] 8, 창작과 비평사, 1997
-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규방문화], 서울:현암사, 1997
- Carole Pateman, “Feminist Critique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pp. 155-160
- Kennety R, Trapp,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매종], 2010년 2월
- [농민신문], 2016년 6월 16일
- [한국일보], 2004년 4월 20일
- [파이낸셜 뉴스], 2014년 2월 4일
- 한상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hansangsoo.com
- 박을복 자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embromuseum.com
- 스미소니온 미술관, www.smithsonianmag.com



살림 공공화의 지형

발표 : 김정희(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살림 공공화의 지형

김 정 희(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세월호 침몰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이전, 특히 1997년 외환위기 후부터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삶과 생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증후군’이 작동하고 있어왔다. 이러한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 증후군은 연이은 재앙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력한 대응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인간보다 먼저 지진을 감지하는 동물들의 감각과 같은 살아있는 신자본주의 체제하의 생명체로서의 생생한 감각일 것이다. 어떤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차분한 위기 탈출의 리더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역사가 가르쳐주는 역설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리더, 살림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살림 공간, 신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신자본주의가 삼켜버리지 못하는 ‘살아있는 삶, 살림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살림 공공화의 다양한 시도들, 그 지형이다. 공공화 되고 있는 살림 공간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온 생명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살림’이라는 살림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되어 온 살림이 더 이상 개별 가구안의 살림만으로는 이 본연의 가치를 지속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까지 살림의 주 단위였던 가정은 오늘날 가정과 작업장,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분화해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한데 이루어지던 삶의 기본단위이자 포괄적 단위였다. 그러나 과거 가정 살림의 이러한 통합적 기능이 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 살림에 여전히 과거의 통합적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과거 살림이 가정 밖으로 분화확대되어 가는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심심하면 터지는 식품 안전에 위배되는 먹을거리 오염, 맞벌이 부부가 흡족할만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지 못해 육아기 여성이 육아를 기점으로 경력 단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 가족이 편히 발뺌고 자기 위한 자기 집 마련을 위해 십 수년 이상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감당에 혁혁대는 주거 현실 등, 현대 사회의 위기는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살림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글에서는 개별 당사자들과 지역 공동체, 모두 만족할만한 혹은 만족할만한 잠재력을 지닌 ‘살림 공공화’의 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식주, 육아 등 살림의 각 영역에서 신자본주의와는 다른 비

전으로 새로운 살림 공공화의 길을 열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림 공공화 지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살림의 공공화(公共化)’는 ‘돌봄의 사회화’, ‘복지’와 같은 개념들과 중첩되거나 유사하지만, 필자는 이를 필자가 이전(2005)에 생명여성주의로 표현한 살림여성주의의 세계관과 원칙을 준수하는 실천과 이 실천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의 총화로 정의한다. 풀어 설명하면, 살림의 공공화는 1) 생태주의 세계관, 자치, 마음(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수성과 소통의 정치, 사회적 고통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초록정치의 조건을 원만하게 체화해가고자 하는 노력과 2) 성찰적인 살림 감수성에 기초하거나 살림 감수성의 회복을 수반하는 공동체적 실천과 제도의 총화로 정의된다. 여기서 공동체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의 결속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발표와 지면의 제약상, 또한 옷살림 공공화의 대표 사례인 녹색 가게는 본 학술대회의 사례로 단독 발표가 되기에 옷살림과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거공간) 중심의 거주 살림의 공공화, 생태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는 단체 사례(새날 복지회와 초록상상 등)는 본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³⁶⁾. 살림 공공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기르는 것이기에 육아와 교육 살림의 공공화 주제는 좀 더 비중 있게 살펴보았다.

2. 육아교육 살림의 공공화

집 살림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남성 근로자가 표준 근로자 모델이 되는 한국의 근대화는 전업주부에게도 사상 유례없는 억압을 결과한다. ‘80년 대 이후 핵가족 연구들은 한없이 무력한 유아를 고립된 핵가족 하에 아이와 덩그러니 홀로 집에 남겨진 전업주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핵가족 육아가 아이와 전업모,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음은 물론 양자 모두에게 매우 억압적임을 한결같이 지적한다³⁷⁾(김정희, 2000, 이경아, 2011). 이런 현실 속에서 ‘90년 대 이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민간 놀이방, 어린이집의 증대와 함께 국가도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존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나 보육의 질에서 취업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이나 보육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가 영아의 경우 28.8%, 유아의 경우 44.1%나 된다³⁸⁾. 이는 무엇보다도 보육시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한 연구에서 간호사, 철도종사자, 생산직, 언론, 방송, 사회복지사, 은행원, 공무원 등에 종사하는 취업 여성들은 최소한 주 2회 이상의 연장근무 혹은 업무상 요구되는 비공식적 활동으로 인해 정규보육 시간(오전 7:30-오후 7:30) 이외의 시간에 대한 보육 요구-시간제 보육 27.9%, 24시간 보육 25.8%, 야간보육18.4%-를 가지고 있었다³⁹⁾. 2012년 조사

36)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 이해경 외, 『살림문화프로젝트 기본연구 : 빙허각 이씨로부터 불러내는 희망』 중 ‘빙허각의 딸들이 만들어 가는 살림 공공화 : 현실과 전망’, 경기문화재단, 2014.

37) 김정희,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16 No.1, 한국여성학회, 2000.

38) 서문희 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137쪽 ‘〈표 V-1-10〉 영유아가구 모취업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에서 취업모의 경우, 보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75점으로 높은 편이 아니며⁴⁰⁾ 이 또한 취업모가 보육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이나 지역 활동가들로부터 자조적인 보육 공공화의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공동육아운동이다. 공동육아는 조합형과 품앗이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1) 공동육아

(1) 조합형 공동육아

부모협동조합형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체 43,770개 어린이집 중 약 0.3%에 불과한 129개소, 아동 수로는 0.2%에 불과한 3,226명에 불과하다⁴¹⁾. 그러나 한국 보육사에서 부모협동조합형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1994년 첫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설립된 이래 조합형 공동육아는 품앗이 공동육아나 대안학교 등, 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보육·교육 공공화의 불을 지폈다. 또한 공동육아의 보육 원칙은 지난 20 여년 동안 기존 보육시설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 방향을 아동 중심 생활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동육아의 자연친화교육, 프로그램을 분 단위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생활 리듬에 맞추어 집처럼 생활하는 생활 중심 교육,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친환경 급식 등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이상적인 보육 형태라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이 교육 원칙과 프로그램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조합형 공동육아의 두 번째 형태로는 지역조합형/지역사회 참여형 공동육아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의 ‘작은 세상 어린이집’과 ‘희망 세상 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출자가 원칙이되 출자금을 내기 힘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자금 면제 제도인 ‘장학 아동’, ‘지역아동’ 제도를 통해 정원의 총 20%를 출자금 없는 장학 아동과 지역 아동으로 충원하고 있고 자기 아이가 없는 지역 주민들도 출자를 한다⁴²⁾.

부모협동형, 지역조합형 모두 부모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부모 참여형이나 후자의 경우는 교사도 출자를 하여 전자보다는 훨씬 더 교사 중심적 운영 체제를 갖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2) 품앗이 공동육아

품앗이 공동육아는 구심 센터의 부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997년 외환위기 모습을 드러내어 개별 품앗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침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운영되고 있다. 특별한 출자 없이 마음에 맞는 엄마들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게 하면서

39) 김정희·이경아 외, 『특수(시간연장형) 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 여성부, 2004.

40) 서문희 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2012: 304쪽(〈표 VI-7-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 5점 척도),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4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현황’, 2013.

42) 김정희, 『풀뿌리 여성정치와 초록리더십의 가능성』,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43~72쪽, .

요리, 동요, 그림 그리기, 산행 등과 같이 자기가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날자 별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맡아 운영한다. 돈은 가장 적게 들이면서 최고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품앗이 공동육아다. 외환 위기 당시 품앗이 공동육아는 자녀를 아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전일제 형태들도 있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유치원이 많이 보급되었고 사교육도 번창한 요즘 전일제 품앗이 공동육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 1, 2회 한 두 시간 진행되는 형태로만 대부분 존재한다.

그러나 ‘구리여성회’의 장난감 도서관 운영과 어머니들에 의해 자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이후 ‘책엄책아’로 축약)의 활동은 품앗이 육아·교육이 지역 보육·교육의 구심체로 정착한 사례로 주목해볼 만하다. ‘구리여성회’는 5명의 어머니가 대출을 내 장난감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가정들에게 어린이 장난감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책엄책아’는 현 관장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동화도 쓰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과 엔지오 활동에 대한 전망 속에서 작은 도서관 공간을 사비로 임차하여 만드는 데서 출발하였지만, 운영은 이제 회원들이 내주는 회비, 장난감 대여료 등으로 운영된다. ‘책엄책아’에서 소모임 활동을 통해 훈련된 엄마들은 학교나 시설들에 체험 교육 강사로 나가고 관련 분야에 취직을 해나가기도 한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

2013년 43,77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6,980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⁴³⁾. 이 어린이집들과 유치원 중 몇 퍼센트가 살림 보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장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공동육아 부모들 중에는 기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해, 혹은 교사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옮겨오기도 한다. 어린이집은 부모 요청에 못이겨 아직은 감각으로 세상을 배워야 할 세 네 살 유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이 바깥 놀이의 안전성을 담보할 적정 수준이 되지 못해 매일 나들이를 나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달리 실내 중심의 보육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태유아공동체’나 ‘애하밥’의 사례는 기존 보육시설에서도 자연친화, 생활 중심의 보육과 교육, 친환경 급식 등 살림 보육의 중요한 내용들이 원장과 교사들의 의지에 따라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적인 아이돌봄을 취지로 2002년 부산에서 시작된 생태유아공동체는 2005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광주전남, 경북 지역 등 전국 800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전북에는 9개의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합하여 유기농 급식을 실행하며 1년 동안 주변 산지와 연계해 주 1회 산지로 ‘꼬마 농부 학교’라는 농사 체험을 하는 ‘애하밥’(‘애들아 하늘밥 먹자’의 줄임말)이 있다⁴⁴⁾. 이러한 사례는 자연친화교육, 생활

4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현황’, 2013.

44) 김정희, “애하밥의 산지 체험 교육”, 『풀뿌리 여성정치와 초록리더십의 가능성』, 2007, 73-104쪽.

/체험 중심의 교육, 친환경 급식이 반드시 공동육아 보육시설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장과 교사들의 의지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으로도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빈곤 계층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다양한 사회 보육교육 시설들

2013년 혼인 외 자녀는 9,332명이다⁴⁵⁾ 2000년에는 입양, 시설 등으로 아이를 보낸 미혼모가 4,000 여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500명으로 많이 줄기는 했다⁴⁶⁾ 이 중 입양된 아이는 2013년 현재 922명이다⁴⁷⁾. 1년에 1,500명의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데는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보다 대신 키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도 그 한 배경이 된다. 미혼모에게는 월 7만원의 양육비가, 입양가정에는 15만원, 위탁가정에는 50만원, 아동보호시설은 105만원, 그룹홈은 107만의 지원 양육비가 주어진다. 미혼모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시설 양육보다 더 나은 양육비가 지원되어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최후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빈곤 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다양한 사회보육교육 시설들이 기능하고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489곳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부모가 없거나 가출한 아동, 청소년 2,438명(2012년 12월 말 현재)을 돌보고 있다.

<표1>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2012.12.31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종사자 수	수 용 인 원			아 동 현 황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3~6세					
계	489	1023	2,438	1,233	1,205	2,438	62	229	848	682	481	50	86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4,003개소가 있고, 이용 아동수는 107,171명이다⁴⁸⁾ 그러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돌보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다. 2011년 '복지사각지대 빈곤 아동 가구'는 전체 가구의 6.5%, 387,544명으로 추계된다⁴⁹⁾.

45)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46) 김희경, '누가 아이를 버리는가', 한겨레 신문 2014. 10. 21.

47) 2011년 1548명이 국내 입양, 916명이 해외 입양되었고 2013년에는 686명이 국내입양, 236명이 국외입양되었다('국내외 입양',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48)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2012.

4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 연구소,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2014: 48쪽.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이 있으나 이 통계가 방치되는 빈곤아동가구 수 측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2012년 12월 31 현재 281곳 15,916명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3년도 아동복지

한편, 2014년 현재 국내 청소년 가출 인구는 22만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2% 정도이다. 이에 반해 가출 청소년들의 보호 전문기관인 쉼터 수는 전국 103개(2013년 8월말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정원은 1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⁵⁰⁾. 가출 청소년의 약 0.5%만 보호받고 있다.

2012년 청소년(13~24세)의 11.2%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에 대해 13~19세는 「성적 및 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7.6%)」과 「직장문제(18.7%)」 순으로 답을 하였다.⁵¹⁾

청소년들의 이같은 잠재적·현실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가동하고 있고 2011~2012년 연간 약 14~15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상담을 받았다.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들은 이 CYS-Net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청소년 자살 충동과 실제 자살율에 참고할 때, CYS-Net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CYS-Net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입위주의 학교 교육, 신자유주의 하 팽팽한 가정경제와 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청소년 자살 충동이나 스트레스의 구조적 요인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CYS-Net 안전망을 아무리 지역 곳곳으로 확산한다 할지라도 이는 큰 성과 없는 행정 관리 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표2〉 CYS-Net_서비스_위기청소년_지원_실적(성별)

단위 : 명

성별	2011			2012		
	진행사례수	신규사례수	종결사례수	진행사례수	신규사례수	종결사례수
전체	145,376	121,043	130,911	149,307	134,212	133,024
여자	67,540	55,809	60,398	70,408	62,965	62,617
남자	77,836	65,234	70,513	78,899	71,247	70,407

출처 : https://gsis.kwdi.re.kr/gsis/statViewNx.html?lang=kor&tbl_id=DT_5EA0310N&area=338_60&empId=null

이런 상황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은 아니나,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아동·청소년 교육복지로 이해해볼 수 있다. 1년에 약 7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이중 복학하지 않는 학생이 4만 여명에 달한다⁵²⁾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대안학교의 형태는 학력 인정 유무,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하다. 미복학 학생 중 이

시설 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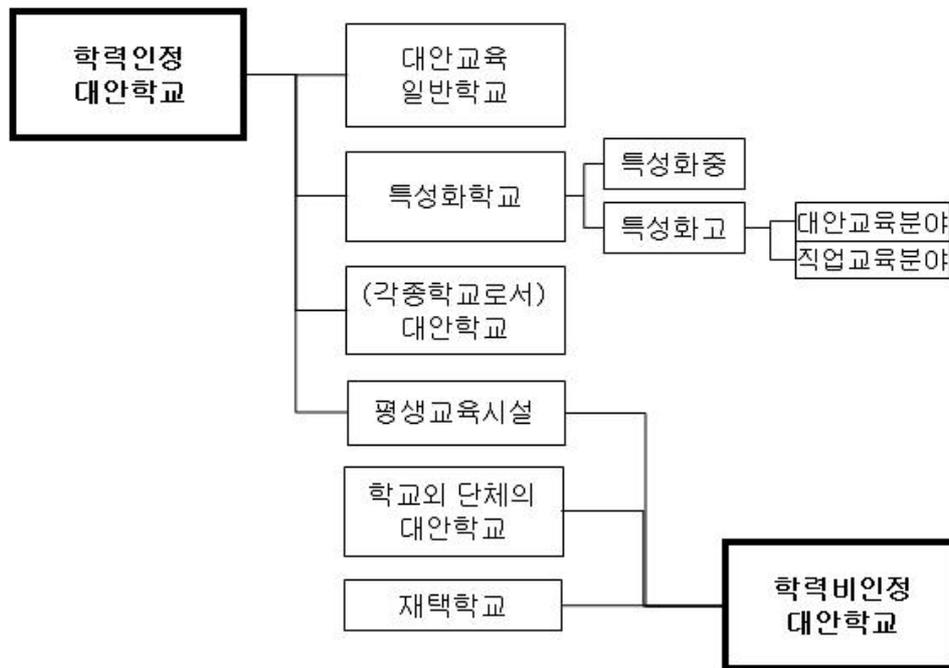
50) 배현진, ‘가출 청소년 방치 심각…불교계 쉼터 5곳뿐’,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847>, 2014. 10. 14일 다운.

51)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보도자료), 2013.

52) 2011년 경우 초중고 신규 탈학교 학생 수는 74,365명이고 이중 복학하지 않는 학업 중단자는 43,419명에 이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2013: 4쪽

들 대안학교가 흡수하는 학생 수와, 방치되는 학생 수가 각각 몇 퍼센트에 이르는지에 대한 통계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아래의 <표3>에서 보듯이 미인가 대안학교가 185곳 8,526명이고 인가 대안학교가 이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학력인정 유무에 따른 대안학교 유형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2013 : 5쪽

<표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개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학교급수 (초중고 구분)	학습자수	교원수
수	185	203	8,526	1,650

자료 : 교육부(2013) : '05-23(목)조간보도자료(미인가대안교육시설분석결과)', '13. 4. 1. 기준 시도 교육청의 조사·제출 자료'

3.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1) 먹을거리 부문의 사회적 경제

(1)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으로 축약)은 식품 안전에 대한 주부들의 고조되던 불안감,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자연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 당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출현 등이 맞물리면서 1980년대 말에 민우회생협, 한살림이 출현하였다. 지금과 같은 매장이 없이 생협운동의 초기 멤버였던 주부들이 자기 아파트의 라인 이웃들을 공동구매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일주일에 한번 공동구매로 소박하게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생협운동은 약 35년 만에 생협 6개 연합회의 총 공급액이 2012년 현재 6천5백억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⁵³⁾. 친환경 시장 매출액이 2011년 3조 2602억 원에 달하니, 이는 친환경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같은 생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협이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의 모범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성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로 생협 내부의 위계적인 성별분업 구조의 문제가 있다. 지난 25년간 생협은 조합원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많은 상근 직원과 주로 여성인 조합원 활동가의 성별 구분은 생협 밖 주류 사회의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성별 계급 구조를 내부에 복사하고 있다.⁵⁴⁾ 두 번째 문제로, 지난 십년간 생협의 수익이 배송센터 설립이나 매장을 새로 여는 데 투자되는 매장 신설의 생협간 경쟁 속에서 조합원 활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마을 살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여성 리더십을 배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조합원은 배가 되었어도 활동가는 제자리 걸음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이사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⁵⁵⁾.

(2) 꾸러미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생협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생산자 가구는 중농 이상의 2천여 가구에 불과하다. 생협과 소비자의 단단한 연대는 역으로 그 서클에 포함되지 못한 친환경 생산자들은 생협 생산자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 소생산자들 또한 생협 생산자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토종 종자로 자가채종하는 보다 생태적 농업은 소생산자들에게서 보존되고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소생산자 중심 도농 직거래 모델로 꾸러미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흙살림, 언니네 텃밭 같은 곳들이 천명~3천명에 이르는 꾸러미 회원을 지닌 꾸러미 선두 주자들이다. 이외에도 귀촌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을 이용하여 개인 꾸러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가배울’과 같이 남도 여성 농민의 자가채종문화와 손맛을 장기로 반찬 꾸러미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가배울은 수지 측면에서, 수도권에 직접 물건을 싣고 오기 힘든 농민들을 대신해 직거

53) 채성훈, 「국내 생협의 사업특징과 시사점」, 『CEO FOCUS』 319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 5쪽.

54)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65-67쪽

55)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65-67쪽

래 장터 업무를 중개하기도 한다.

(3) 식품 산업에 진출하는 여성들

여성은 음식 제조, 음식 맛을 이끌어온 전통 속에서 식품 산업에도 음으로 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많은 식품 산업이 각종 화학 첨가물, 수입 재료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국산(친환경) 재료를 고수하는 여성 식품 산업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단, 자신이 기업 대표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들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부인이나 어머니가 지닌 손맛이 식품 산업체의 핵심인 경우가 허다하다. 먹을거리 산업의 공공화가 사회적 경제 형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회사, 농업회사와 같은 형태라도 친환경 재료, 화학 첨가물 배제와 같은 식품 안전 원칙을 준수한다면, 식품 기업 형태도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예로 포함된다.

(4) 엔지오나 민간 주도의 먹을거리 공공화

앞에 예를 든 ‘애하밥’과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는 형태, ‘가배울’과 같은 문화단체가 농촌 답사 여행과 직거래를 연결시키는 사례, 수원가족지원센터의 된장 담기 사업과 같은 것이 있다. ‘수원가족지원센터’의 된장 담기 사업은 수원 시청 옥상에 향아리를 두고 시의 지원과 회원들의 주문 비용으로 된장을 담근다. 이제 첫 해를 한데 불과하지만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로 발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업이다. 다만 하나의 의문은 구좌 비용을 내고 장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과 이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간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수백명의 장을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향아리, 향아리 뚜껑, 큰 다라이를 닦는 일 등, 힘든 육체 노동을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한다. 폭우나 태풍이 올 때는 한걸음에 달려가 장독대 뚜껑을 제대로 덮어놔야 한다. 된장 담는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하고 된장 구좌를 산 사람들은 사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구조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까는 의문이 남는다.

4. 결론 : 살림 공공화의 심화·확산을 위하여 - 녹색의 거버넌스

단체들은 살림공공화가 심화·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관의 공공 지원의 기준은 규모 중심 일변도에서 내용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관은 마치 엔지오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듯한 규제 일변도 행정에서 벗어나 성실한 민간 기관의 경우 지원의 파트너십을 발휘해주어야 한다. 공공성이 있는 주민자치적인 마을 사업에 대한 저리 용자와 같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민간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만큼 경청되어야 하지만, 개별 단체의 의견으로는 경청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지자체, 국가

를 상대로 조례나 법 제정과 같은 정책 언어로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연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연합 단체나 정책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풀뿌리 단체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니면 성남시의 ‘새날복지회’가 중심이 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역사회 복지협회’의 사례와 같이 사안별 지자체·국가 수준의 연대체들의 결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체들이 살림의 공공화를 확대하도록 지자체와 상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살림의 공공화는 보다 힘을 받으며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05-23(목)조건보도자료(미인가대안교육시설분석결과)', 2013.
- 김정희,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제16권 1호(ISSN 1226-3117), 2000.
-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 김정희, 『생명여성정치의 현재와 전망』 서울: 푸른사상(ISBN 89-5640-294-9), 2005.
- 김정희, 『풀뿌리 여성정치와 초록리더십의 가능성』,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김정희·이경아 외, 「특수(시간연장형) 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 여성부, 2004.
-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2년 12월 31일 현재), 201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2013.
- 서문희 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 이경아, 『엄마는 괴로워』, 2011, 서울:동녘
- 이혜경 외, 「살림문화프로젝트 기본연구: 빙허각 이씨로부터 불러내는 희망」, 경기문화재단, 2014.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20012.
- 채성훈, 「국내 생협의 사업특징과 시사점」, 『CEO FOCUS』 319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 5쪽.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 연구소,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2014
-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보도자료), 201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2013:

〈인터넷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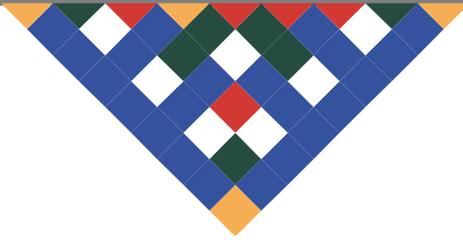
- 배현진, '가출 청소년 방치 심각...불교계 쉼터 5곳뿐',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847>, 2014. 10. 14일 다운.
- 청소년 쉼터 설치 현황, 2013,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4.jsp
- 통계청, '국내외 입양',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2013_청소년_통계_수록_통계표'. 201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87091
- CYS-Net_서비스_위기청소년_지원_실적(성별),
https://gsis.kwdi.re.kr/gsis/statViewNx.html?lang=kor&tbl_id=DT_5EA0310N&area=338_60&empId=null



사례발표 1

여성 운동에서 생명 - 살림 운동으로

발표 : 한옥자(수원가족지원센터 소장)



여성 운동에서 생명 - 살림 운동으로

한 옥 자(사)수원가족지원센터장

차이는 인정하겠지만 차별은 못 참아

지금은 묻는 사람도 없지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꺾박을 받던 그 어두운 시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여성 운동을 하는 것을 궁금해 했다. 교수처럼 조금은 자유로운 직장도 아니고 하루 8시간을 꼬박 자리 지켜야하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왜 ?, 그리고 어떻게 여성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 했다. 전통을 중시하고 철저하게 남성중심인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나는 다른 가정의 장녀처럼 의무는 많고 권리는 없는 힘겨운 존재였다. 아들 노래를 부르다 태어난 5살 연하 동생과의 차별에 가자미 눈이 될 정도로 분노하며 성장을 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항상 부반장만 하는 이 사회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여중, 여고를 거쳐 100% 여성들만 다니는 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은 성차에 의한 갈등보다는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로 맘고생을 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직종에 상관없이 25살 김선생님(남)이 31살 미스 한(여)을 부르는 호칭에 분노하며 여직원회를 만들고, 결혼퇴직제에 대항하고, 출산휴가 제대로 찾기를 지원하면서 나는 어느새 지역의 여성운동가가 되었다. 그렇게 30여년 수원지역의 여성운동가로 살았다. 초기 차별의 분노에서 출발했던 여성운동은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로 옮겨갔다. 보육운동,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과 자치 운동,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으로 이어진 학교급식운동, 외환위기 여성 일자리에서 출발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태와 갈등을 넘어 마음 속 평화에 이르는 데까지 관심이 확장해 갔다.

산업화가 낸 먹거리의 대기업 진출과 우리 밥상의 위기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고스란히 체험했다. 종가집인 우리집은 생선과 어찌다 먹는 고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먹거리는 철저하게 자급자족을 했다. 쌀은 물론 모든 곡식을 직접 재배했고, 과일과 야채도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해결했다. 두부

도 집에서 만들고, 막걸리와 동동주도 집안에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봄이면 장을 담그고 가을이면 고추장을 담곤 했다. 우리 간식은 농사지은 쌀로 만든 떡과 막걸리를 잔뜩 먹고 누런 밀가루에 팔이 잔뜩 든 찌빵이었고, 겨울이면 깨엿, 산자, 다식 등 여러 종류의 엿이 우리 입을 즐겁게 했다. 이 모두는 당연히 집에서 지은 농사 수확물이 원 재료였다. 지금은 이렇게 추억하지만 그 당시 내 어머니 삶은 종일 일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삶이었다. 그 옆에서 어깨 너머로 어머니의 음식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란 나는 어느 한 때도 허리를 못 펴고 사는 어머니의 삶을 경멸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으로 사먹은 샘표 된장은 참으로 맛좋았다. 약간 시큼하고 매운 우리집 고추장보다 사먹는 고추장은 달달하고 입에 착착 감겼다. ‘왜간장’에 비벼먹는 밥은 어찌 그리도 맛있던지. 내입을 즐겁게 해준 그 음식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학력 신장, 사회 참여 확대를 포함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급변기에 돈 맛을 아는 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인 국가 기반시설부터 소소하게는 한 가정의 먹거리까지 사냥거리가 너무 많았다. 라디오와 티브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광고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 맛을 내기위해서는 ‘미원’을 넣어야하고, 이집 저집 다 먹는 된장을 꼭 그 고생을 하고 꼭 담가야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미 편리만을 추구하는 아파트 생활은 대대로 물려받은 장독을 가차없이 때려 부수도록 했다. 드라마의 장면 장면은 우리 뇌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그 길을 미친 듯이 따라갔다. 혹시라도 낙오될까봐 조마조마해하면서 그 대열에서의 이탈을 두려워하면서 판단력을 상실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지경이었다.

우리 밥상을 변화시킨 식품산업의 변천을 살펴보면 1950년 대 이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중심으로 식품 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1956년 밀과 설탕을 가공하는 제분, 제당산업이 발달, 1960년 대 이후 전통 식문화가 와해되고,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으로 가공식품의 내수 시장 증대, 1970년 대 유가공, 육가공, 과채 가공의 비중 증대, 1980년 대 가공식품의 내수 팽창,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시장 개방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의 대부분을 시장이 장악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가. 세계 시장에 의존하는 식량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 현재 식량 자급율은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 1.0%, 밀 0.6%, 콩 9.8%로 각각 추정,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 두부 등 각종 음식물 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주식인 쌀의 경우도 2010년 104%에서 2012년 83%, 2014년 75%로 추정하고 2050년에는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우리 식탁은 그 농작물이 재배되는 과정의 유전자 변이를 비

롯데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과도한 농약 살포, 지구를 한바퀴 돌아 대한민국까지 오는 동안 소비되는 엄청난 탄소 등 식탁을 넘어 지구를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다.

나. GMO, 농약, 그리고 탄소 발자국

우리 농산물 비율이 1.0%인 옥수수, 0.6%인 밀, 9.8%인 콩은 대표적인 수입의존 식품이고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다. 이 밖에도 감자,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쌀 등 수많은 식품이 유전자를 조작해 병충해에 강하면서도 조기 생육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유전자가 조작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인구 64%가 유전자 조작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다양한 논란의 와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유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지 유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 만성적 설탕 과다 섭취와 심각한 식품 첨가제

미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2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21.6%, 2012년 24.1%, 2013년 24.5%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너무 광범위해 간과되는 두 물질은 설탕과 식품 첨가제이다. 2013년 하버드대 공중위생센터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18만3천명이 탄산음료, 스포츠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식품에 첨가된 설탕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 기관에서의 탄산음료 판매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비만의 원인이 설탕에 기인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했다.

식품을 가공하고 조리할 때 식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시키거나, 맛을 향상시키고 색을 유지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식품 본래의 성분 이외에 첨가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식품첨가제 문제는 알레르기를 비롯해 홀몬 교란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식품첨가물은 총 606품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인구 1인당 일년에 55KG 성인 기준 표백제 0.003Kg, 표백제 0.003kg, 발색제 0.014kg, 착색제0.074kg, 감미료8.69kg, 보존제 15.902kg 등 총 24.69kg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망각되어가는 우리 맛

이미 우리 밥상은 인스턴트식품이 차지했고, 요즘은 식탁조차 치워진 집이 적지 않다. 아침은 굵고 점심은 아이는 학교급식, 남은 식구는 직장 근처 식당이나 패스트 후드 점에서 때우고 저녁은 피자집, 햄버거집, 그리고 치킨집에서 배달로 때우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양상이 순환기계 질환, 그리고 대장 질환으로 변경되고 비만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설령 슬로우푸드라해도 재료는 이미 시장이 장악하고 있어 원재료에서부터 신선도나, 본래 식품이 가진 고유의 맛을 상실하기 쉽다. 이미 조미료에 익숙한 우리 입맛은 더 자극적인 맛을 따라

다니고,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이 그 성분을 통한 영양섭취와 건강보다는 입을 즐겁게 하는데 충실하게 했다. 시금치 나물이나 취나물의 맛 차이를 모르겠고, 콩나물과 숙주 나물 맛의 차이를 잃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런가하면 맛을 흉내 내면서 우리 정신을 흐려 놓는다. 바나나맛 우유, 딸기맛 우유가 그렇고 게맛살이 그렇고 전통맛 된장 이 그럼에도 원 재료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마. 사먹는 된장의 민얼굴

원 재료가 되는 콩과 밀이 대부분인데 유전자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 시판된 장의 경우 콩기름을 짠 찌꺼기인 대두분과 삶은 콩, 그리고 밀을 섞어 코지균으로 발효시켜 만드는 것으로 전통된장에 비해 숙성 기간이 매우 짧다. 특히 맛과 향을 재래된장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 MSG를 첨가하고 밀가루를 발효하면서 나온 단맛이 짠 맛을 가려 염분 섭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산분해 간장의 경우 DCP(클로로프로판올)와 MCP(모노클로로프로판올)등이 검출되었는데 각종 암과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다. 착색료와 화학조미료, 방부제로 사용되는 솔빈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 표백제, 착향신료 등이 사용되며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대안을 찾아서

나는 식품 안전의 위험성을 인지한 이후 ‘한살림’을 비롯해 무농약, 유기 농산물을 구입하여 먹었고, 고추장, 된장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직접 담가먹었다. 수원여성회 회원들과는 사무실 옥상에 향아리를 사 놓고 회원과 함께 메주를 구입해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필요한 만큼 떠다 먹도록 하기도 했다. 곡물은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었고, 생선이나 유류도 무항생제를 먹었다.

몇 년전부터는 광고에 텃밭을 빌려 대부분 채소는 직접 재배해 먹었다. 봄이면 상추, 시금치, 케일, 썩갓을 비롯해 다양한 채소의 싱싱한 맛을 볼 수 있었고, 감자는 물론 고구마, 토마토, 참외, 고추를 실패와 성공을 교대로 하면서 우리 집만은 식품 산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있었다. 그러나 점차 이렇게 사는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나만 잘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생각과 잘 몰라서 또는 너무 바빠 패스트 후두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값싼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에 나서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자라는 아동들의 먹거리 문제와 고염, 저영양, 고 칼로리 식품에 대한 위험성 경고와 이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해 우선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이르렀다.

나에서 우리로

미국에서는 1995년 ‘Healthy People 2000’를 목표로 미국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전체 연령층, 그리고 각 세대별 건강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기 비만율이 의미있게 감소했고, 성인의 경우 고혈압을 포함해 대사성 질환율이 괄목할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생활 변화는 시민 건강에 중요한 지점이다.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Der Mensch ist was er ißt)”라는 말처럼 먹거리는 오늘 나를 만들어 준 근본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폐해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먹거리 시장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두가지 실천을 계획했다. 하나는 된장을 만들어 먹는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들의 식생활 교육이었다.

가. 된장 프로젝트

2011년 연구재단의 ‘인문학도시’ 공모에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선정되었다. 그 프로젝트의 PM으로 참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먹거리에 대해 인문학적 접근을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먹거리, 음식은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의 몸과 맘, 영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동안 먹거리에 대해서는 요리나, 영양, 건강의 부수적인 부분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우리 전통 음식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이야기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룬다. 역사 이래 우리 조상이 이야기를 담아 먹고 마신 그 모든 것은 DNA를 통해 후세에 전달 되 오늘 우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 면에서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내일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음식이야기’ 인문학 강좌를 기획해서 총 10강을 했다. 강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50인 강의실이 넘쳐 100인이 들어가는 강의실을 급히 찾아야했다. 마지막 강의는 ‘우리민족의 혼,醬을 말하다’였다. 강의를 종료될 시점 쯤 자연스럽게 후속 모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그 중 하나가 장 담그기였다. 당시 교육 참가자들 대부분은 시판된장을 먹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어릴 적 기억 속, 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장담그기를 해보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음식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던 전통음식 전문가 박종숙경기음식연구원장과 수차례 만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향후 건강한 먹거리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수원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전통음식 유지 보존에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흔쾌히 함께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후 된장 프로젝트는 급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현안은 어디에 장독대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장 담그기는 최소한 3월 안에 진행해야한다는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홍보할 것 인가였다. 장독대는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면서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했고 너무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또 너무 외진 곳도 피해야 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찾기 위해 시청을 비롯해 시 산하기구 여러 곳을 방문하여 평가한 결과 시청 옥상에서 장담그기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청 시설팀에서 현재 우리가 지정한 장소는 무게 때문에 장항아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러 과정을 거쳐 두 곳에 분산하는 조건으로 시청 옥상에 99개의 장항아리를 배치 장독대를 만들면서 나의 관심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었다.

1) 2013년

총 200가정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200명과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참가자들과 나누는데 중심을 두었다. 장 관련 교육을 4회 실시했고, 참가자 참여형으로 3월부터 장담그기, 5월 장 가르기, 11월 초 장 리뉴얼을 거쳐 장 나누기를 실시했다. 장 가르기하는 날에는 지역 아마추어 오카리나팀이 장독대에서 하는 아름다운 공연을 해 주었고 장 나누기를 하는 날에는 수원지역의 어려운 이웃 100가정을 초대해 고사떡 잔치와 작은 음악회, 그리고 장 나누기를 함께했다.

2) 2014년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자라나는 아이들도 확대하기로 결정해 사업을 확장했다.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변화를 위해 4회 교육과 장 만들기 과정의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아파트에서도 장만들기를 위해 5가정을 선정 염도와 방향 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14년 진행 중인 사업은 아래와 같다.

내용	참여수	메주량	비고
일반참여자	320가정	150말	
초등학교	3곳	20말	
유치원	5곳	10말	
어린이집	5곳	10말	
일반가정	5가정	5말	아파트에서 장 담그기 실험

아동식품안전교육

국민 건강을 위해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아이 때부터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로 마침 어린이식생활교육이 가능하게 돼 어린이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소정의 자격(영양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을 갖춘 강사를 모집하여 총 16시간의 교육과 분야별 교육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여 아래와 kx이 교육을 시켰고 요청이 있으면 강사를 파견하여 학부모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 내용	기관수	피 교육 아동수
음식으로 떠나는 즐거운 상상 여행	23	582
건강을 해치는 달콤함	14	337
알록이 달록이 음식의 색 이야기	37	917
똑똑하게 먹고 건강해 지자	19	494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12	306
위생 교육	105	2,636
계	210	5,272

나가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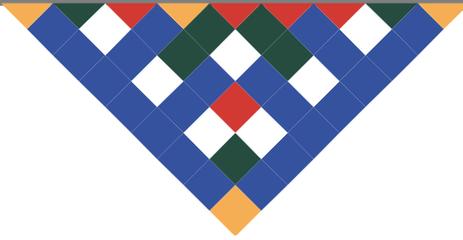
포괄적으로 시민성운동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시적인 구호에 묻혀있는데 최근 경향은 마을로 내려가 시민들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삶에서 중요하지만 그 동안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운동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내 손으로 장항아리를 거부하고 다시 내 손으로 장항아리를 구입하는 모순이 내 젊은시절에서 나이 들기로 이어지는 성숙함의 결과로 보인다. 먹는 문제는 다분히 개인적 사안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보육문제가 이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먹는 문제만큼은 함께 바른 길로 함께 나서야 할 문제이다. 미셸 오바마가 초등학교를 찾아가 ‘조금 괴로운 먹거리가 너희를 살릴거라’며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노력을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된장을 포함한 올바른 먹거리 운동을 통해 진행해 보려한다. 그 성과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 건강과 삶을 바꾸는 또 다른 운동이 될거라 믿으며 오늘도 된장 항아리 닦으러 간다.



사례발표 2

사)구리어성회

발표 : 선수연(구리어성회 사무국장)



사)구리여성회

선 수 연(구리여성회 사무국장)

구리여성회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성평등과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한 여성단체입니다.

문학치료 엄마선생님 양성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해본 엄마들이 우리 옛이야기에 담긴 사랑과 이해 공존의 비법을 통해 즐거운 변화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엄마선생님이 됩니다.

이분들이 강사가 아닌 엄마가 필요한 곳 - 지역아동센터, 학교방과후, 다문화 조손가정 아동들에 파견되어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아리모임

오카리나 동아리 소리나눔 - 20대~50대 주부들이 매주모여 음악을 나누고, 거리공연도 하고, 아이들에게 재능 나눔으로 지도도 하고, 음악이 필요한 곳에 가서 공연도 합니다.

Diy동아리 리본풍경 - 설새없이 변하는 유행! 육아용품도 살림살이도 필요한건 너무 많고, 다 사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품질을 믿기 힘들고....

엄마들이 모여 같이 레시피를 만들고, 재료를 구입하고, 함께 만들어 공유하는 아름다운 살림살이 하는 동아리를 운영하며 자기개발도 하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풍물동아리 땅울림 - 주부들의 쌓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은 가족풍물패로 운영. 즐거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꿈가득 장난감 도서관

2010년 좀더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십시일반 힘을모아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회원들이 집에서 쓰던 가구, 장난감, 책등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랑 놀고, 엄마들은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울타리이고, 엄마들에게는 맘편히 수다떨고, 차한잔 마실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언니 친정언니 만들기

임신, 출산, 육아로 지치고 고립된 우리 동네 아기 엄마들! 같은 동네 사는 언니가 친정언니와 같은 포근한 조력자가 되어 줍니다.

〈마을여성들이 만드는 친정네트워크〉

-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노하우를 공유해요.
-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해요.
- 우리 동네 여러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 자녀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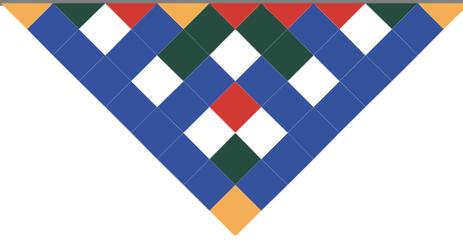
- 보육사각 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돌보는 사업을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가정 아동 돌봄,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돌보아주는 사업, 엄마가 임신중이거나 다둥이 쌍둥이 가정 아동의 방과후 돌봄 등)
- 엄마의 눈으로 볼때 위험한 곳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변화와 대책을 마련한다
(10년 넘게 켜진적이 없는 구리 청소년 수련관 사거리 신호등을 엄마들이 앞장서서 시와 경찰서를 설득하여 정상가동 시킴)
- 동네 엄마들과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축제 개최



사례발표 3

여성들이 만든 우리 마을의 푸른 내일

발표 : 김은령(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운영위원)



여성들이 만든 우리 마을의 푸른 내일

김 은 령(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운영위원)

: 돌봄 어울림 나눔의 공동체

: 재활용, 되살림, 마을, 생태, 행복한 삶

지금 나의 주변을 둘러보자.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물건들 가운데 필요에 의해 산 것은 얼마나 될까. 그 필요가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또 얼마나 될까.

위와 같은 고민으로 생활 밀착형 환경운동을 펼치는 본 단체 이름은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이다. 이 이름은 ‘푸른 내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와 스스로 그 길을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친환경 생활양식의 이끔이가 되고자하는 본 단체의 활동을 각각의 키워드로 소개하려한다.

- 재활용

1) 1단지자원재활용캠페인 (1992년 ~ 현재)

단체의 첫 활동은 1992년 11월에 시작한 1단지 아파트 “자원재활용 캠페인”이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유팩과 폐지를 모아오면 비누와 휴지를 교환하여 주었다. 당시는 분리수거의 개념이 없던 때였지만 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과천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게 되었다 참여자 수는 월 평균 80명으로 지금도 봉사자 3명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나가 주민들의 재활용을 돕고 있다 “1단지 자원재활용 캠페인”은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이 시작한 최초의 지역 환경활동 프로그램으로 회원과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되고 있어 앞으로의 지속성은 두고 봐야하는 시점에 있다.

- 나눔

2) 알뜰장(나눔장터) 1994년~현재

그러다 입지 않는 옷과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1994년 6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중앙공원에서 물물교환시장을 열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

매월 참여하는 단골 참여 가족들이 생기고 이제는 자원봉사센터, NGO연합,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과천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알뜰시장의 운영이 환경부의 폐기물관련 정책인 나눔 장터 모델로 소개되었고 2003년 6월에는 환경부 한명숙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과천시와 함께 대규모로 장을 펼쳤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알뜰 나눔 장터가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과이다. 아나바다의 인식이 정착되면서 최근 5년 사이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푸른내일은 회원 4-5명이 조를 짜서 매월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3) 알뜰매장 (1996년 ~ 현재)

하루 70-80여 명이 드나들고 이용회원수가 9,000명을 넘는 재사용·재활용 가게가 있다. 1991년 무렵에 10여 명의 주부들이 모여 가족에게 보다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생활협동공동체(이하 생협) 조직으로 출발했고 그러면서 주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녹색가게는 처음엔 과천시민회관 지하 2층의 7평 남짓한 공간에서 알뜰매장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그 ‘절실한 필요성’이란 1997년 말에 닥쳤던 IMF의 그림자였다.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져 이용자가 갑자기 많아졌고, 마스크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은 더욱 늘어갔다. 녹색가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주민들의 요구로 상설매장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녹색가게 사무국이 꾸려 지고 녹색가게 운동이 시작됐다. 한때 50개 가까이 생겼던 녹색가게는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 영남 등 에 3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녹색가게 운영의 노하우와 철학 등은 모두 과천 녹색가게에서 공유했다.

현재 과천 녹색가게는 과천시민회관 2층 로비에 자리 잡고 있다. 과천시의 후원으로 지금의 공간을 마련할 수 되었다. 하루 70~80여 명이 넘는 이용자와 좁은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활동가를 생각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나마 전국의 녹색가게 가운데 과천 녹색가게의 형편이 제일 나은 편이다.

전국 최초의 녹색가게인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은 가능한 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물건을 나누고 바꾸어 쓰는 재사용운동인 녹색가게 운동을 1996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천을 중심으로 지속해오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져온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해 가는 방식으로 책정된 물품가격의 60%를 녹색카드에 적립해 사용한다.

하루현금 수입은 5-6만원, 교환판매는 20여 만 원 정도이며 기부된 포인트는 모아두었다가 연말에 구세군양로원에 이용권으로 기부한다. 이용권으로 두둑한 옷가지를 고른 어르신들은 이곳을 ‘그린백화점’이라 부른다. 현금 판매금은 매장관리비, 지역사회 장학금, 월드비전 아동 돕기(연 후원금은 3-4백 만 원) 등으로 환원한다.

40여명의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정하여 돌아가며 가게봉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교대 시간을 지켜야 하고 봉사할 때 입는 녹색 앞치마를 입었을 때는 물건을 고르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경우, 하루 최대 구매 수량을 15점으로 제한하고, 물건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가져오도록 권하며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웃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운동은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의 주부 자원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생활밀착형 환경운동이라 자부하고 있다

4) 알뜰사랑으로 다시 입는 교복 행사(1998년 2월~)

2014년에는 1,426점을 접수하여 1,045점을 판매하였다 판매액4,724,700원에 205명 참가하였다. 교복의 경우는 판매된 교복에 한해서 90%를 접수자(학생,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고, 판매되지 않은 교복은 기증 처리되어 녹색가게에서 상설로 판매되고 있다. 졸업하는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입었던 교복을 깨끗이 손질하여 내놓았고 후배들은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기도 한다.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새 교복만을 고집하지 않고 선후배가 교복을 나누어 입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제는 졸업생들에게 학교에서 홍보할 정도로 자리매김한 아주 성공적인 행사이기도 하다.

5) 단체 내 분과활동

- 마을

소식지 발행 (1994년 ~) : 회원들이 직접 취재, 편집, 발행하는 단체의 소식지로 현지 83회까지 발행됐다. 마을의 소식에 항상 귀 기울이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서 취재와 탐방을 통해 배우며 단체의 회원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단체행사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

- 돌봄

후원회분과 :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외에도 후원 물품이 필요한 곳에 물품을 보내며, 지역 내 방과 후 교실, 장애인 재활 및 복지 활동지원과 연중행사로 길상사 김장 봉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생태

푸른산 사랑운동 (2000년 3월 ~)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계산 5,6호 약수터 주변의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야생화 심고 가꾸기, 나무 이름표 달기 등의 활발한 행사도 진행했다. 정화작업을 하는 우리 회원들을 보고 함께하는 등산객들도 있다.

천연화장품제작활동 : 전문 교육을 통하여 공부하는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천연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화장품은 제조 허가가 필요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 회원들끼리 공유한다. 천연 탈취제, 모기 퇴치제, 립밤 등은 녹색가게 이용자들도 많이 찾는 품목이 되었다.

- 되살림

“재사용 연구소”에서는 1998년 장바구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배포했고 재활용 전시회, 재활용패션쇼, 과천 시 위탁 재활용 공모전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작업하면서 재사용 재활용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몫을 했다.

“행복한 바느질 세상” (2012년 ~ 현재) : 바느질 팀은 바느질과 재봉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중심으로 우산천이나 현수막으로 가방, 선풍기 커버, 생활소품을 만드는 재사용 강좌를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강좌가 되었다

단순히 배우고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응용하고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우산수리 (2002년 ~ 현재)

매년 5월 9월 2회에 걸쳐 고장 난 우산을 고쳐주는 우산 고쳐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 평균 300개 이상의 우산이 접수되고 과천시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만큼,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실감한다. 함께 봉사해 주시던 수리하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치는 봉사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일의 의미와 기술을 물려주고 싶어도 배울 이가 나서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이 걱정이다.

- 행복한 삶, 어울림, 공동체

여성생명학교 : 1998년부터 연 1회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생명학교를 열어 그때의 이슈를 중심으로 유방암, 핵 반대, 노후생활, 여성의 환경들 다양한 관심거리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지도 : 청소년 봉사활동도 지도하고 있다. 학교 자체에서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학생들과 함께 폐 현수막을 이용하여 단체에 필요한 플래카드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주제를 주면 학생들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곤 한다.

플뿌리인 우리단체가 먼저 기획하고 시작한 “어린이 생태기행”이라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기행”등의 프로그램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접어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 이유는 생태, 교육 등 시민단체가 시작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무료로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여 규모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조선일보 환경부 주최 환경대상을 영광스럽게 수상했고
2009년 에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주는 교보생명 환경문화상(환경운동부문)을 수상했다. 이런
풀뿌리 환경단체에게 이런 큰 상들을 주어졌을 때 전국의 녹색가게는 물론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
에게 힘이 됐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의 회원들은 단체 활동을 통한 깨달음으로 ‘나보다 우리’ 그리고 ‘우리
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을 꼽는다. 우리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활동이란 주변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단순히 매장을 이용하지만
점차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게 되길 바란다. 물론 크고 거창한 환경운동도 있지만 우리와
는 뭉치 모두 다르다고 생각한다. 20여 년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굳건히 지켜온 본 단체는 과천
의 말언니같은 존재로 ngo, 협동조합,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연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부들
이 친환경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고 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바뀔
거라고 믿는다.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02-500-1446

<http://welove3r.or.kr>

살림문화운동 학술대회

- 새롭게 보는 살림문화 -

기획

조유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원장)

김지욱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진행

김지욱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정춘옥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선임연구원)

발표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혜경 (경기대학교 교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김정희 (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한옥자 (수원가족지원센터 소장)

선수연 (구리여성회 사무국장)

김은령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운영위원)

발행일 : 2014. 11. 13.

발행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